기쁨의언덕으로 edSan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ONNA



(8)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Dear Lord 주님,

From October 2021, 10월에는

Time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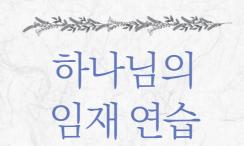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mark>로렌스 형제</mark> -Brother Lawrence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은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회를 나누는 영적 기 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면지들 LETTERS

나는 단순하게(simply), 믿음 안에서(in faith), 겸손과 사랑으로(with humility and with love)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아예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쳤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와 더불어 해주시리라희망합니다.

열한번째편지

ELEVENTH LETTER

큰고통가운데 있는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 전부를 주관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고통(pains)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견딜 만한 힘과 인내(strength and patience)를 베풀어 주십사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에 당신을 해방시켜 (loose)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이들은 행복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고난에 익숙하게(accustom)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그때까지 오래, 그리고 많이 견딜 수 있도록 그분께 힘(strength)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truth)를 납득하지(comprehend) 못 합니다. 하지만 굳이 놀랄 일도 아니지요. 그들은 크리스천(Christians)이 아니라 세속에속한 사람으로서 고난을 겪으니까요(suffer). 그들은 질병(sickness)을 하나님의 은혜(favour from God)가 아닌 육신을 향한 고통으로 간주하지요. 이런시각으로만보기에 그속에서 슬픔과 고민 외에는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을 자비로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의 자비의 결과

(effects of His mercy)이자 구원(salvation)을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 (means)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큰 달콤함과 적당한 위로(sensible consolation)를 발견한답니다.

하나님께선 종종(어떤 의미에서)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시며, 더 효과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의사(Physician)에게 전적으로 매달리지 마세요. 내 생각에 당신의 치료(cure)는 그분께서 자기 몫으로 따로 남겨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회복(recovery) 하는 중에 믿음의 결과들을 곧 보게 될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술(physic)을 더 신뢰해서 종종 그 회복을 더디게 만든답니다.

어떤 치료법을 쓰던 간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한다 성공할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야, 그분만이 낫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분은 이따금 몸에 질병을 보내어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몸과 영혼 전부를 주관하시는 그치료자(the sovereign Physician)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합시다.

내가 주님의 식탁에서 너무 편하게 먹고 마신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당신이 그렇게 여길 만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왕의 식탁에서, 그것도 왕이 베푸는 데서 음식을 먹지만, 용서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건 고통 아닐까요? 나는 그가 엄청나게 큰 불안을 느낄 거라 믿습니다. 그의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건 주군(his sovereign)의 관용(goodness)을 신뢰(trust)하는 것뿐이지요. 따라서 내가 내 왕의 식탁에서 무엇을 맛보며 즐기던 간에, 한 번 내 눈 앞에 존재하던 나의 죄는 불확실한 용서만큼이나 나를 괴롭힌다고 단언합니다. 실은 그 괴로움(torment) 마저 그 자체로나를 즐겁게 만들지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신 그 상태에 만족하세요.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 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히려 당신이 부럽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받을 수 있다면 고통과 고난은 내게 있어 낙원(paradise)이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기쁨(the greatest pleasure)이라도 그분 없이 누리는 거라면 내겐 지옥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머지않아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이 생에서 나를 위로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그분을 본다는(see) 것입니다. 이처럼 그를 보기에 때때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요.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다만 봅니다."라고요. 믿음(faith)이 나를 가르치는 걸느끼지요. 그리고, 믿음을 확신(assurance)하고 훈련(practice)하며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죽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고민거리(af-fliction)에 대한 유일한 격려(support)이자 위로(comfort)입니다.

나는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간청할 것입니다.

안부를 전하며

열두번째편지

TWELFTH LETTER

동일한 서신 왕래자로 추정됨: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듯 나를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the exercise of the presence of GOD)하는데 익숙해진다면, 모든 육체의 질병은 그로 인해 매우 완화되겠지요. 하나님께선 우리가 영혼을 정화시키고(purify) 그분과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이따금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분께 당신의 고통을 끝없이 아뢰세요. 부디 고통을 견딜 만한 힘을 달라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자주 즐기는 습관을 지니고, 그분을 잊고 지내는 시간일랑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당신이 허약할 때 그분을 예배하고(adore) 때때로 그분께 당신 자신을 드리 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겸손히 애정을 가지고(아이가 아 버지께 하듯) 그분의 거룩한 뜻(His holy will)에 따르게(conformable) 해달라고 간청하세요. 나는 미약하지만 기도로서 당신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서 자신을 숨기시지요. 그러나우리가 필요할 때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오직 믿음(faith)만이, 우리의 버팀목(support)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기초 (the foundation of our confidence)가되어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처리하실지(dispose)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세상은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장 엄격한 훈육(the severest discipline)을 받아 마땅한 나는 이토록 거듭되는 기쁨(joy)이 너무 큰 나머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당신의 괴로운 부분을 내게 나눠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싶지만, 나는 내 약함(weakness)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답니다. 그 분께서 단 일 분이라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다면 살아있는 이들 중 가장 불쌍한 사람(the most wretched man)이 될 정도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떠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 음(faith)은, 내가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강한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 이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버리지(forsake) 않는 한, 그분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conviction) 말입니다.

그분을 떠나는 걸 두려워합시다. 항상 그분과 함께 합시다. 그 분의 존재 앞에서 살고 죽기 바립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듯 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회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① 통독본문

3년 1독<mark>을을</mark> 위한 오늘 통독 범위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③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01

January = Fri

지혜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How do we increase our wisdom?

1 독독본문 Reading Plan 잠연 Proverbs 1-2장

3 새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여는기도 Opening Pro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6

2

복잡기

1장은 잠언의 서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자 시작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지혜와 훈계를 깨달아 살의 원리 를 배우고, 하나남께서 뜻하신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 2정은 1장에 이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라면 찾 고 구혜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심을 약속 하다.

잠언 2:1-1

6대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가직하며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 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 에서 내심이며

7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 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9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 리라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Chapter 1 is the prelude of Proverbs: the feer of the Lord is the basis and beginning of knowledge; young people especially should learn the principles of life by understanding wisdom and instruction; and we are admonished to live lif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Chapter 2 continues to elaborate on the benefits of wisdom. If we want to gain wisdom, we must seek it. And if we seek it, we will receive it as a gift from God.

Proverbs 2:1-12

- ¹ My son, if you receive my words and treasure up my commandments with you,
- ² making your ear attentive to wisdom and inclining your heart to understanding.
- ³ yes, if you call out for insight and raise your voice for understanding.
- 4 if you seek it like silver and search for it as for hidden treasures,
- 5 then you will understand the fear of the LORD and find the knowledge of God.
 6 For the LORD gives wisdom; from his mouth come
- knowledge and understanding;

 7 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he is a shield to
- those who walk in integrity,

 8 guarding the paths of justice and watching over the way of
- his saints.

 9 Then you will understand righteousness and justice and equity, every good path;
- 10 for wisdom will come into your heart, and knowledge will be pleasant to your soul;
- ¹¹ discretion will watch over you, understanding will guard you,
- 12 delivering you from the way of evil, from men of perverted speech,

7 말씀 속으로

>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What should we do to gain wiscom? (2:2~4)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6절) From whom does wisdom

come? (2:6)

묵상 중에 만난 주님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⑤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독습니다.

-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②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금께서도 제사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③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 ②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목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간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현을 위한 함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영커리지한인연합감리고회 금원자(AK) 기쁨의 교회, 정준식(AL) 한민총회, 한민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15H -11

loose from The Hil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Wisdom is a gift from God and must be sought

장안의 히브라이 단어, '마산'은 '-와 같다', '비와'로 반역이 되어 삶에서 관찰된 일정한 배탁등의 교훈을 간결하게 담은 장애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로는 이 는 '장에 말한 '인을 사용하여 마치 바늘로 찌르돌이 가르치는 일이만 뜻이 요. 솔로모을 비롯한 지혜자들은 성을 깊이 관점하면서 일정한 배턴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2명이서 솔로몬은 ''아이들이'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세들에게 건리하듯이 말하십니다. 권리 핵심은 '구하고 첫으나'는 겁니다. (이-4절) 선물을 구하고 조르는 자녀에게 주지 않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하는 자예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 7년1), 지혜를 연극하고 첫 문학에 가하는 것이 하나다. 소리를 참여야 하고 보 화를 찾듯이 찾으면 지혜와 명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 보면 의료 지혜를 구하거나 갖지 않는 자신을 말감하니 되다.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혜를 보용하게 여기되는 일기 때문입니다.

잠압 4:7에서는 지혜가 으뜸(supreme)이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라도 명월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보화이며, 그것을 만든 차는 구하고 찾 고 결국 업계 됩니다. 그러나 용시에 제하는 하나님이 친히 주나는 선물이자(6 절), 그분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금까지 나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새해에는 으름이며 보화인 지혜를 구하고 찾 으십시다.

The Hebrew word for proverbs is "mashel" and means "_ is the same as." It is translated as "parable" and is an instruction succincity containing certain patterns of precepts observed in file. In Chinese, it is "Ball Samfurn. It consists of the word "Jam" which means "a needle" and "Eun" which means "spoken word. "Combined it means to teach as if poking with a needle. People with visidom, including Solomon, deeply observed life and discovered certain patterns existed. Solomon begins Chapter 2 with "My son", life when a father admonslash is children. The essence of the admonition is to "seek and search." (2:3-4)

There is no parent who would refuse to give a gift to a child who earnestly asks for one. Our Father in Heaven will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Matt 7:11) if we want to gain visidom, then we must ask for it and seek God who is the source of visidom. We must raise our vice and we must seek it as if seeking treasures. Then we will be given wisdom and understanding. But if we look at curselves, we might be surprised that we are not seeking or searching for visidom. It is because we do not treat visidom as a precious treasure though we know thet we need wisdom.

Proverbs 4:7 says that wisdom is supreme: therefore, we should gain understanding even though it may cost all you below. Webom is treasure and those who believe that will seek, search, and ultimately gain it. But at the same time, wisdom is given by God and God is wisdom. (2:6) In other words, we cannot gain wisdom if we are separated from God. If we had no wisdom until now, lat us seek and find the supreme being and treasure of wisdom as we welcome the New Year.

- 22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⑤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문제없다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 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 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언제가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 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모임 장소 Tip! ✓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 지 않도록 합니다.

●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이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

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 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 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 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1 October

10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주요일정

SUNDAY	MO	INDAY	TUE	SDAY
3	4	에스겔 Ezekiel 4-5장 □	5	에스겔 Ezekiel 6-7장 □
10	11	에스겔 Ezekiel 13장 □	12	에스겔 Ezekiel 14장 □
17	18	에스겔 Ezekiel 20장 □	19	에스겔 Ezekiel 21장 □
24	25	에스겔 Ezekiel 26장 □	26	에스겔 Ezekiel 27장 □
31				

WEI	DNESDAY	THU	RSDAY		FRIDAY	SATU	JRDAY
				1	에스겔 Ezekiel 1장 □	2	에스겔 Ezekiel 2-3장 □
6	에스겔 Ezekiel 8장 □	7	에스겔 Ezekiel 9-10장 □	8	에스겔 Ezekiel 11장 □	9	에스겔 Ezekiel 12장 □
13	에스겔 Ezekiel 15~16장 🗆	14	에스겔 Ezekiel 17장 ロ	15	에스겔 Ezekiel 18장 □	16	에스겔 Ezekiel 19장 □
20	에스겔 Ezekiel 22장 🗆	21	에스겔 Ezekiel 23장 ロ	22	에스겔 Ezekiel 24장 □	23	에스겔 Ezekiel 25장 □
27	에스겔 Ezekiel 28장 □	28	에스겔 Ezekiel 29장 □	29	에스겔 Ezekiel 30-31장 □	30	에스겔 Ezekiel 32장 □
				5 M T 5 6 7 12 13 14 19 20 21	W T F S 1 2 3 4 8 9 10 11 4 15 16 17 18 1 22 23 24 25 3 29 30	5 M T N 1 2 3 7 8 9 1 14 15 16 1	3 4 5 6 0 11 12 13 7 18 19 20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에스겔

에스겔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한당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략 주전 6세기 초 25년 정도를 에스겔의 활동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에스겔서 1:3에 보면에스겔이 어디서 활동했는가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곳이 "갈대아땅 그발 강 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발강이 어디인가에 대해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발강이 터키에서 시작해 시리아북동쪽을 가로질러 유프라테스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카부르 (Khabur) 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포로 생활을 겪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속으로 진지하게 물었던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오게되었는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지켜 내실수 없었는가? 우리가 포로가 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

실수 있으신가? 37:11의 말씀 - "...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 은 포로 생활 가운데 겪었을 이스라엘의 절망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게 대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고 대답합니다(8-11장).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던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게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기간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여호와의이름이 정결케 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36:22-23절의 말씀 - "... 내가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나의 거룩한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나의 큰 이름을 내가거룩하게 할지라." - 에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을 멸망과 심판의 기간뿐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기회로 바라보는 에스겔의 신학이들어 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해 볼 때 에스겔은 매우 독특하게도 예언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1:3). 전통적으로 예언자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에스겔과 같은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아모스는 정의로운 삶을 무시한 채 죄 사함만을 위해 드려지는 제사를 아주 신랄하게비판했습니다(아모스 5:21-25). 아모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예언자들은 희생제사의 효능만을 믿고 그것을 남용하는 맹목적인 신앙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에스겔이 예언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인 것은 매우독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했으니 예언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인 에스겔을 부르셔서 위로하시고(제사장 직무), 또 견책하시려는(예언자적 직무)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할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전반에 걸쳐 성전에 대한 환상이 자주 등장하는 것과, 특히 에스겔서의 후반부,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성전의 회복으로 이어

지는 것도 예언자이지만 동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었던 에 스겔을 생각한다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환상들은 그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강렬합니다. 그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란 찬양에 등장하는 "마른 뼈의 환상"(37장)은 가장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런 환상들은 에스겔서를 매우 매혹적이고, 또 영감 있는 책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환상들에 대한 도를 넘어선 집착과 무분별한 남용은 오히려 환상을 통해 전달돼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2014년 말, 한국 교회는 환상 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15개의 땅굴을 찾아내어 북한의 침입을 막지 않으면 2014년 12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예언'은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를 타고 한국 사람들 사이에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예언'한 것과는 달리 2014년 12월, 한국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스젤서를 읽으며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이며 그 '예 언'을 통해-특히 환상과 같은 신비한 사건을 동반한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 다. 믿음 생활 속에는 분명 우리의 이성이 닿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일이 있습 니다. 기도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환상을 보고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보고 경험한 환상과 황홀경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이를 절 대적인 것이라고 규범화시키면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순수한 영 적인 존재가 아닌 육과 혼과 영이 함께 어우러진 상황적인 존재입니다. 상황 적 존재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종교적인 경험들은 순수한 영적인 경 험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우리의 역사적인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경험 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환상이나 황홀경을 경험했다면 이 경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심리적 상태가 만들어낸 것인지 냉철하게 돌아보아 그가우데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사람들 마음에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그 환상들은 환상 자체에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죄악에 물든 사람을 회개케 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환상'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환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에스겔의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1-11:25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심에 대한 환상
- 2. 12:1-24:27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 3. 25:1-32:32 주변 일곱 나라들에 대한 예언
- 4. 33:1-39.29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
- 5. 40:1-48:35 하나님의 영광의 돌아옴과 약속의 땅 재건에 대한 환상 (에스겔의 성전)

•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 Vision (히)하존, (헬)호라마. 꿈, 묵시, 환상 꿈보다 더 직접적인 계시의 형태
- 예언, 하나님의 계시, 심판, 미래적 종말, (히)나바, 대언 예언, 대변하다 미래의 일을 용하게 알아 맞추는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며 하나님 의 뜻을 전달하는 일.

October 금 Fri

에스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다

Ezekiel saw visions of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1장



새323장(통355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기을 예루살 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던 때(바벨론의 2차 침공, 왕하 24장), 함께 끌려간 에스겔이 첫 번째 환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다.

에스겔 1:1-10

- 1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 가 사로잡 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 이 내게 보이니
- 2여호야기 왕이 사로잡힌 지 오 년 그 달 초닷새라
- 3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 4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 5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 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 6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 7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 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 8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 9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 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 10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 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 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Reading insigh

When the nineteenth king of Southern Judah Jehoiachin was taken alive from Jerusalem to Babylon by Nebuchadnezzar the king of Babylon, Ezekiel who was also taken to Babylon received the call of the LORD in his first vision.

Ezekiel 1:1-10

- 1 In the thirtieth year, in the fourth month, on the fifth day of the month, as I was among the exiles by the Chebar canal, the heavens were opened, and I saw visions of God.
- ² On the fifth day of the month (it was the fifth year of the exile of King Jehoiachin),
- ³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Ezekiel the priest, the son of Buzi, in the land of the Chaldeans by the Chebar canal,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him there.
- ⁴ As I looked, behold, a stormy wind came out of the north, and a great cloud, with brightness around it, and fire flashing forth continually, and in the midst of the fire, as it were gleaming metal.
- ⁵ And from the midst of it came the likeness of four living creatures. And this was their appearance: they had a human likeness,
- ⁶ but each had four faces, and each of them had four wings.
- ⁷ Their legs were straight, and the soles of their feet were like the sole of a calf's foot. And they sparkled like burnished bronze.
- 8 Under their wings on their four sides they had human hands. And the four had their faces and their wings thus:
- **9** their wings touched one another. Each one of them went straight forward, without turning as they went.
- 10 As for the likeness of their faces, each had a human face. The four had the face of a lion on the right side, the four had the face of an ox on the left side, and the four had the face of an eagl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환상 속, 네 가지 생물은 어떤 얼굴을 갖고 있었나요? (10절) In the vision, what kind of faces did the four animals have? (1:10)

환상 속,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에 앉으신 분은 어떤 모습이었나 요? (26절)

In the vision, what kind of shape was the figure sitting on the throne above the expanse? (1:26)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애쉬번 한인교회, 강현식(VA) 엠마오연합감리교회, 김철기(V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꿈과 환상도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Even dreams and visions were recorded as the Word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창 15장), 야 곱(창 28장), 요셉(창 37장), 다니엘과 에스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마 2 장), 베드로(행 10장), 바울(행 16장) 사도요한(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꿈과 환상을 경험했지요: 바로(창 12장), 아비멜렉(창 20장), 느 부갓네살(단 2장).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듯합니다. 1)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경우와 2)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당장 자신의 행동을 멈추는 경고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삶을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갔고, 거짓된 꿈에(렘 29:8)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이한 환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the word)을 듣고 권능(the hand)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3절).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는 삶을 새롭게 살아갈 기회가 모두의 손에 쥐여진 것이며,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 가운데. 꿈과 환상은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People who believed in God experienced dreams and visions: Abraham (Gen. 15), Jacob (Gen. 28), Joseph (Gen. 37), Daniel and Ezekiel, Jesus' father Joseph (Matt. 2), Peter (Acts 10), Paul (Acts 16), Apostle John (Rev.), etc. Sometimes even those who don't even believe in God experienced dreams and visions: Pharaoh (Gen. 12), Abimelech (Gen. 20), and Nebuchadnezzar (Dan. 2).

There seems to be two types of people who experience dreams and visions from God: (1) those who become the instrument of God to deliver the will of God to neighbors upon realizing the presence of God, and (2) those who receive the warning to immediately stop what they are doing.

Through these experiences people gained opportunities for new life. However, there were people who returned to their lifestyle before they experienced the will of God and some who fell into false dreams (Jer. 29: 8). Ezekiel experienced mysterious visions given by God, listened to His Word, was led by His hand, and became an instrument of God to deliver His message (1:3).

The Word and the hand of God were recorded for believers of present generations. This gives opportunities for all generations to have new life and reasons to take hold of the Word of the Scriptu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ake hold of the Scripture and be led by God. In the midst of that, you will receive dreams and visions as a gif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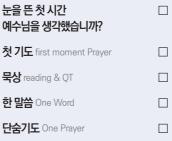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October 토 Sat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Eat what is given to you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2-3장



새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보이신다(2장). 또한,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이시며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실 것을 알려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간 이외에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신다(3장).

에스겔 2:8-3:7

- 8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 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 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 9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 10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 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 1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 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 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 2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 3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 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꿈 같더라
- 4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 5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 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 6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 을 알아 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 7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 니함이니라

Reading insight

God showed Ezekiel the scroll that had the recorded word of God's judgment for the descendants of Israel who became the prisoners (Ezek. 2). God ordered Ezekiel to eat the scroll that contained the Word of God. God was telling Ezekiel to awaken the tribes of Israel with the Word of God. But, God allowed Ezekiel to open his mouth only at a designated time determined by God (Ezek. 3).

Ezekiel 2:8-3:7

- 8 "But you, son of man, hear what I say to you. Be not rebellious like that rebellious house; open your mouth and eat what I give you."
- ⁹ And when I looked, behold, a hand was stretched out to me, and behold, a scroll of a book was in it.
- 10 And he spread it before me. And it had writing on the front and on the back, and there were written on it words of lamentation and mourning and woe.
- ¹ And he said to me, "Son of man, eat whatever you find here. Eat this scroll, and go, speak to the house of Israel."
- ² So I opened my mouth, and he gave me this scroll to eat.
- 3 And he said to me, "Son of man, feed your belly with this scroll that I give you and fill your stomach with it." Then I ate it, and it was in my mouth as sweet as honey.
- 4 And he said to me, "Son of man, go to the house of Israel and speak with my words to them.
- 5 For you are not sent to a people of foreign speech and a hard language, but to the house of Israel--
- ⁶ not to many peoples of foreign speech and a hard language, whose words you cannot understand. Surely, if I sent you to such, they would listen to you.
- 7 But the house of Israel will not be willing to listen to you, for they are not willing to listen to me: because all the house of Israel have a hard forehead and a stubborn hear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2:3-4)

From God's point of view, what was the Israelites' condition? (2:3–4)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나요? (3:7) How did Israelites treat the Word of God? (3: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와싱톤사귐의교회, 김영봉(VA) 와싱톤제일교회, 정성호(V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mark>낄.끼.빠.빠." 하고 계시죠?</mark> "Ggil, Ggi, Bba, Bba" now?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라는 명령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을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만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에스켈로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3:26). 하나님 심판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악행을 깨우쳐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순간 에스겔이 하나님의 역할까지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출애굽(민 20장)때, 물을 달라는 백성들을 향해꾸 짖는 목소리를 낸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기에 가나안에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에스겔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 아닐까요?

최근에 남의 일에 눈치 없이 참견하는 사람들을 향해, "상관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낄끼빠삐'라는 신조어를 사용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정확한 가이드 라인, "낄끼빠삐"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꾸짖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낄.끼.빠.빠.'를 행하시는 모두가되시길 기도합니다.

As God gave His word of judgment to Ezekiel, He also ordered Ezekiel to awaken Israel. Ezekiel could not talk because his tongue was stuck to the roof of his mouth but when God spoke, his tongue was released so that he could open his mouth to speak. The reason that Ezekiel's mouth was made shut was because God wanted to make sure that Ezekiel was "unable to rebuke them." (3:26)

Ezekiel knew the plan of God's judgment and he was given the duty to awaken the Israelites to their wickedness, but it was God's careful consideration to ensure Ezekiel would not play God himself. Because Moses blocked the glory of the LORD when he rebuked the people asking for water during the Exodus (Num. 20), he was denied entry into the land of Canaan. Wasn't that the reason why Ezekiel was silenced? Because God did not want Ezekiel to succumb to the same temptation?

A newly coined phrase "Ggil Ggi Bba Bba" generally means "mind your business" and carries a negative connotation toward people who meddle with others' business uninvited. It means "meddle selectively, withdraw selectively." As God gave us a mission He gave a clear guide – an honest "Ggil Ggil Bba Bba". Therefore as we live by the Word of God, we should not try to block the glory of God or try to climb to the seat occupied by God "by rebuking others." I pray that today we should all practice the biblical "Ggil Ggi Bba Bba."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	
66	1	
V.		

	_	
4	<u></u>	
u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	er
-------------------------	----



한말씀이	ne Word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지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Title		
서건보다 a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은혜를 주소서!

이성웅목사(워싱턴예수사랑교회)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겔 3:1-3) 선지자 에스겔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어떤 기록된 말씀을 먹었기에 그렇게 입에 꿀같이 달았을까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세상의 복을 비는 말씀이었을까요? 칭찬의 말씀이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먹었기에 그토록 입에서 달았을까요? 바로 앞의 2장의 말씀에 에스겔이 먹은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겔 2:9-10)에스겔 선지자가 먹은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입에서 꿀과 같이 달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부흥이 아닐까요? 오늘날은 감정을 자극하여 웃고 울리고 자신의 귀를 가려주고 듣기에 편하고 세상의 형된 소망을 빌어주는 설교가 인기입니다.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 마음에 찔림 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 그런 설교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사 30:10)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렘 6:10) 말씀이 잘못 선포되고 말씀을 잘못 받으면 무서운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렘 5:30-31)

저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자랑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의 심령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할 때 그 심령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그 입에 송이 꿀과 같이 달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강단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심령에서 역사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오늘날의 풍조는 자신을 향하여 책망하고 교훈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할 때 송이 꿀과 같이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 119:103) 아멘!

October 월 Mon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I will cut off food that you depend on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4-5장



새144장(통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심판을 알리시며,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 어지는 의식을 치르게 하신다(4장). 또한, 심판으로 드러날 처참 한 상황과 심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신다(5장).

에스겔 4:16-17, 5:11-16

- 16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 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 17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 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 11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 며 긍흌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 12너희 가운데에서 삼분의 일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삼분의 일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삼분의 일은 내가 사방에 흩어 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 13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 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 14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 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 15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 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 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니라
- 16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Reading insight

As God declares judgment, He requires Ezekiel to perform acts symbolizing the Israelites carrying the burdens of their sins (Ezek. 4). God also reveals a detailed method of judgment and the miserable situation to be brought by His judgment (Ezek. 5).

Ezekiel 4:16-17, 5:11-16

- 16 Moreover, he said to me, "Son of man, behold, I will break the supply of bread in Jerusalem. They shall eat bread by weight and with anxiety, and they shall drink water by measure and in dismay.
- 17 I will do this that they may lack bread and water, and look at one another in dismay, and rot away because of their punishment.
- 11 Therefore, as I live, declares the Lord GOD, surely, because you have defiled my sanctuary with all your detestable things and with all your abominations, therefore I will withdraw. My eye will not spare, and I will have no pity.
- 12 A third part of you shall die of pestilence and be consumed with famine in your midst; a third part shall fall by the sword all around you; and a third part I will scatter to all the winds and will unsheathe the sword after them.
- 13 "Thus shall my anger spend itself, and I will vent my fury upon them and satisfy myself. And they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that I have spoken in my jealousy--when I spend my fury upon them.
- 14 Moreover, I will make you a desolation and an object of reproach among the nations all around you and in the sight of all who pass by.
- 15 You shall be a reproach and a taunt, a warning and a horror, to the nations all around you, when I execute judgments on you in anger and fury, and with furious rebukes--I am the LORD; I have spoken--
- 16 when I send against youthe deadly arrows of famine, arrows for destruction, which I will send to destroy you, and when I bring more and more famine upon you and break your supply of brea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악을 짊어지는 의식을 치룹니다. 이들은 몇년간 하나님 앞에서 죄 를 지은 것인가요? (4:4-6) Ezekiel performed acts symbolizing the people of Israel carrying the burdens of their sins. How long did they sin in front of God? (4:4-6)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예루살렘 (남유다)의 죄는 무엇인가요? (5:11)

What was the sin of Jerusalem (southern Judah) that God pointed out? (5: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와싱톤한인교회, 김영훈(VA)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 구정훈(VT)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라떼는(나 때는) 말이지···" "To mention Latte (My Time)···"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삶을 맞이합니다. 백성들 중 일부는 광야의 거친 삶 정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여겼을 겁니다. 동시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진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잘 살게 될 것을 꿈꾸며 마음을 달랬겠지요. 하지만, 이내 곧 광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귀한 물건들이 아닌 먹을 것임을 경험합니다. 더욱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일하지 않으면서도 먹을 것을 공급받는 삶을 체험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 받았습니다(신 8 장). 그런데, 광야를 거쳐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잊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양식을 의뢰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광야의 때와 같이 음식(물질)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활의 문제'만 신경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적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고민)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벗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흔들어 놓으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Before the people of Israel entered the promised land Canaan, they lived in the desert. Some of them may have considered the difficult life in the desert as a prerequisite to entering the promised land where milk and honey were flowing. At the same time, as they looked at valuables taken from Egypt they comforted themselves by dreaming about the good life ahead. However, they quickly realized that it was not valuables but food that was most precious in the desert. Furthermore, they experienced a supply of food without labor as they are manna from heaven and quails. Through these experiences, the people of Israel were trained to learn that people do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the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Deut. 8).

But they had forgotten the most important teachings of God as they settled in Canaan after the desert. That was why they continued to "live life depending on food" even prior to the judgment of God. As if in the desert, they focused on food (materials) rather than the Word of God. In other words, they paid attention to "matters of livelihood"

God wants to point this out. If your focus on current problems is not consistent with "living on the Word of God," you should remember that God may also disrupt your lif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October 화 Tue

산과 땅에 임한 심판

Judgment upon mountains and lands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6-7장



새83장(통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당들을 멸하신다. 산당의 제단 과 우상들을 멸하고 백성들을 그것들 앞에서 벌하겠다 하신다(6 장). 또한 이스라엘의 땅에 재앙을 내리시며 땅에 가득한 가증한 우상을 멸하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 겠다"하신다(7장).

에스겔 7:5-13

- 5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 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 6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 어다 그것이 왔도다
- 7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 렆고 날이 가까웦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 8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 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 을 네게 보응하되
- 9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 10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 11 포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 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 의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 12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 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 13 파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 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 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Reading insigh

The Sovereign LORD destroyed high places in Israel. The altars in high places and idols would be destroyed and the people of Israel would be punished in front of them (Ezek. 6). Calamity would come down on the land of Israel and the detestable idols throughout the land would be destroyed. Through judgment God declared,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Ezek. 7)

Ezekiel 7:5-13

- 5 "Thus says the Lord GOD: Disaster after disaster! Behold, it comes.
- 6 An end has come; the end has come; it has awakened against you. Behold, it comes.
- **7** Your doom has come to you, O inhabitant of the land. The time has come; the day is near, a day of tumult, and not of joyful shouting on the mountains.
- 8 Now I will soon pour out my wrath upon you, and spend my anger against you, and judge you according to your ways, and I will punish you for all your abominations.
- ⁹ And my eye will not spare, nor will I have pity. I will punish you according to your ways, while your abominations are in your midst.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who strikes
- 10 "Behold, the day! Behold, it comes! Your doom has come; the rod has blossomed; pride has budded.
- 11 Violence has grown up into a rod of wickedness. None of them shall remain, nor their abundance, nor their wealth; neither shall there be preeminence among them.
- 12 The time has come; the day has arrived. Let not the buyer rejoice, nor the seller mourn, for wrath is upon all their multitude.
- 13 For the seller shall not return to what he has sold, while they live. For the vision concerns all their multitude; it shall not turn back; and because of his iniquity, none can maintain his lif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6:8-10)

What is the role of those who are spared by the judgment of God? (6:8-10)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 결은 무엇인가요? (7:13) (참고, 롬 6:23) What is the judgment of God against the sins of people? (7:13) (Refer to Rom. 6:23)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애틀연합감리교회, 박세용(WA) 좋은씨앗교회, 정요셉(W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죽음 앞에서, 알게 하리라 In front of death, I will let you know

산당 'High Place'은 높은 장소-하늘과 가까운 장소로써, 신적인 존재를 만날 기대를 담아내는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산당은 이방의 문화 속에서 세 워진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의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하 나님께서 산당과 우상을 동일시하며 심판하십니다. 우상을 믿는 믿음이란, '나의 제사는 반드시 신이 받을 것이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자기중심적 믿음입니다.

신의 존재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의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심판' 중에 증거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죽음(생과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6:7),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7:4,9),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7:13)는 '생과 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경외)으로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남겨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목격하게 하는 수단이자 은혜를 깨닫는 과정입니다(6:8).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The "high place" was literally a high place – which was believed to be closer to heaven – and was a place where people expected to encounter some kind of divine existence. Such high places were built in the midst of gentile culture but the people of Israel accepted the culture of high places. That was why God treated the high places the same as idols and passed judgment against them.

Idol faith began as a mindset that an idol god will definitely accept my worship service. Idol faith is also based on a selfish faith that the idol god is the real god who solves all the problems of my life. The existence of God is defined as they please. Even among the Israelites, such faith existed. To those people, God decided to prove the existence of God in the "midst of judgment." Answers to questions like "What does it mean to be near to God?" and "What does it mean to have the presence of God?" became known to them through life and death.

"Your people will fall slain among you" (6:7), "I will surely repay you for your conduct" (7:4, 9), and "Not one of them will preserve his life" (7:13). Through these life and death experiences God let them know of His existence and taught them to face God with awe and fear. Judgment is not only the price to pay for sins but also a means to clearly witness the character of God as well as a process to understand the grace of God through those who received the grace of being spared judgment (6:8). Know that the judgment of God exists and live another day in awe of Go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October 수 Wed

두 번째 화상. 가증한 일을 보다

In the second vision. I saw detestable thinas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8장



새190장(통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게 하신다.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의 땅에 있으나,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만연한 우상숭배를 보게 하신다: 질투의 우상, 우상 벽화, 담무 스. 태양 숭배

에스겔 8:5-13

- 5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 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 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 6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 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 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 7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 에 구멍이 있더라
- 8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 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 9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 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 10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 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 11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칠십 명이 그 앞에 섰으 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같이 오르더라
- 12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 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 13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 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Reading insight

God showed Ezekiel the second vision. Though Ezekiel was in Babylon, through the vision God showed the temple of Jerusalem full of idols: the jealous idol, idol murals, Tammuz, and the sun god.

Ezekiel 8:5-13

- 5 Then he said to me, "Son of man, lift up your eyes now toward the north." So I lifted up my eyes toward the north, and behold, north of the altar gate, in the entrance, was this image of jealousy.
- 6 And he said to me, "Son of man, do you see what they are doing, the great abominations that the house of Israel are committing here, to drive me far from my sanctuary? But you will see still greater abominations."
- And he brought me to the entrance of the court, and when I looked, behold, there was a hole in the wall.
- 8 Then he said to me, "Son of man, dig in the wall." So I dug in the wall, and behold, there was an entrance.
- ⁹ And he said to me, "Go in, and see the vile abominations that they are committing here."
- 10 So I went in and saw. And there, engraved on the wall all around, was every form of creeping things and loathsome beasts, and all the idols of the house of Israel.
- 11 And before them stood seventy men of the elders of the house of Israel, with Jaazaniah the son of Shaphan standing among them. Each had his censer in his hand, and the smoke of the cloud of incense went up.
- 12 Then he said to me, "Son of man, have you seen what the elders of the house of Israel are doing in the dark, each in his room of pictures? For they say, 'The LORD does not see us, the LORD has forsaken the land."
- 13 He said also to me, "You will see still greater abominations that they commi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벌어진 결과는 무엇인가요? (6절)

What was the result of detestable things that people did? (8:6)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18절)

How did God deal with those people who did detestable things? (8:18)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 박용규(WA) 맑은 물 펠로쉽 한인교회, 김재선(WI)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The Sovereign LORD is not watching us?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이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남겨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으며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셨기에 남유다가 어려움에 처했다 여깁니다. 그래서, 제단의 북쪽에서 질투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신 4:2)의 대체용으로 유사한 성격의 우상을 찾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니, 하나님과 유사한 신을 섬겨서 우리를 돌보게 하자"라는 마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성전의 북문 근처에서 담무스를 위해 애곡한일과 성전의 뜰에서 태양의 신을 숭배한 일도 모두 가증한 일인데, 이러한행동에도 "나를 위하는 신이라면 그 어떤 신이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응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나 살기 위해서 지푸라 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는, '상한 심령'(시 51:17), '영과 진리'(요 4:24),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히 11:6)으로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하루가 되십시오.

As King Jehoiachin of Judah and the people of Jerusalem were taken to Babylon, the people who escaped had to survive by themselves. The elders of Israel who were left behind believed that God had left Israel and southern Judah was in trouble because God did not take care of Israel. So they began worshipping the idol of jealousy at the northern end of the temple. This was not mere worship of idols. They found a look-alike idol as a substitute for the "Jealous God" (Deut. 4:2).

It was an act of a mind reflecting, "Since God has abandoned us, let us serve a look-alike god who will take care of us." It was detestable that they lamented for Tammuz near the northern gate of the temple and they worshipped the sun god in the courtyard of the temple. But what was even worse was the mindset behind their act that "Any god is acceptable as long as that god will help us." Because of this mindset, God refused to answer the cries of the people.

If our mindset when we seek and implore God was "I would take hold of even a slight thread in order to survive," the Sovereign LORD would not answer our cries. I hope that today will be a day when our LORD would answer the cries of our "broken heart" (Ps. 51:17), "in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and with "faith that pleases God" (Heb. 11: 6). God will not turn away from those crie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October 목 Thu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

People who grieve and lament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9-10장



새214장(통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며 긍휼함을 입을 자와 긍 휼함을 입지 못할 자를 구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시고 이들을 남는 자가 되게 하신다(9장), 에스겔은 첫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생물들을 다시 목격한다(10장).

에스겔 9:3-11

- 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 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 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 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 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 5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흌을 베풀 지 말고 쳐서
- 6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 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 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 7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 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 8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 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 려 하시나이까
- 9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 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 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 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 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에 갂으리라 하시더라
- 11보라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찬 사람 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Reading insigh

As God passed judgment on Jerusalem, He separated those who would receive mercy from those who would not. A mark would be placed on the forehead of those who grieved and lamented as they watched the detestable things done by the people of Israel and they were spared (Ezek. 9). Ezekiel again witnessed the same figures he saw in the first vision (Ezek. 10).

Ezekiel 9:3-11

- ³ Now the glory of the God of Israel had gone up from the cherub on which it rested to the threshold of the house. And he called to the man clothed in linen, who had the writing case at his waist.
- 4 And the LORD said to him, "Pass through the city, through Jerusalem, and put a mark on the foreheads of the men who sigh and groan over all the abominations that are committed in it."
- ⁵ And to the others he said in my hearing, "Pass through the city after him, and strike. Your eye shall not spare, and you shall show no pity.
- 6 Kill old men outright, young men and maidens, little children and women, but touch no one on whom is the mark. And begin at my sanctuary." So they began with the elders who were before the house.
- **7** Then he said to them, "Defile the house, and fill the courts with the slain. Go out." So they went out and struck in the city.
- And while they were striking, and I was left alone, I fell upon my face, and cried, "Ah, Lord GOD! Will you destroy all the remnant of Israel in the outpouring of your wrath on Jerusalem?"
- **9** Then he said to me, "The guilt of the house of Israel and Judah is exceedingly great. The land is full of blood, and the city full of injustice. For they say, 'The LORD has forsaken the land, and the LORD does not see.'
- ¹⁰ As for me, my eye will not spare, nor will I have pity; I will bring their deeds upon their heads."
- 11 And behold, the man clothed in linen, with the writing case at his waist, brought back word, saying, "I have done as you commanded 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어느 장소에서 부터, 누구로 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나요? (9:6) From where and from whom did the judgment start? (9:6)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9:2,11; 10:6)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What kind of clothes did the people of God who execute God's order wear and what meaning do they have? (9:2, 11; 10:6)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 한명훈(WI)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 정희권(W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Faithful person in the eyes of God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를 인지한 이들은 탄식하며 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마에 표식을 받게 하여 멸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시키십니다. 심판이 시작되려 하자, 에스겔도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8절, "주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의인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하나님의 심판을 만류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모두를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출 32:12)라고 간청한 모세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탄식하며 우는 이들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판을 만류하고 주의 노를 거두어 달라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눅 23:34)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쉽게 뒤집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갈 5:6)으로 이웃을 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됩니다.

God ordered the destruction of Israel. At this moment those who realized the detestable things done in Israel grieved and mourned and they received a special mark on their foreheads and were spared from destruction. As the judgment was about to start, Ezekiel fell face down and cried out to God, "Ah Sovereign LORD! Are you going to destroy the entire remnant of Israel in this outpouring of your wrath on Jerusalem?" (9:8)

This reminds us of Abraham pleading with God not to pass judgment on Sodom and Gomorrah for fear that the righteous might be swept away with the wicked at the time of judgment. We are also reminded of when Aaron and the people of Israel worship the golden calf they produced, and God wanted to destroy the people. Moses implored God, "Turn from your fierce anger; relent and do not bring disaster on your people." (Exod. 32:12)

Who could boast righteousness before the judgment of God? But the minds of those who grieved and mourned before God's judgment and the minds that implored God not to pass judgment and to turn from His fierce anger were recognized as "humble minds of Jesus" in the eyes of God. This was the mind of Jesus when he was dying on the cross, "Father, forgive them." (Luke 23:34) God does not change His mind easily. However, when we help our neighbors with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Gal. 5:6), the mercy of God will come upon u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ᅯᆌᄃᇎᆞ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October 금 Fri

심판 받는 예루살렘

Jerusalem under judgment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11장



새273장(통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차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은 권력의 욕심 으로 완악 해져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리신 다. 동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 복을 선포하신다.

에스겔 11:1-10

- 1그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 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댜를 보았으니 그들 은 백성의 고관이라
- 2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 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 3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 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 4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 할지니라
- 5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 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 노라
- 6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 웠도다
- 7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 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 8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 9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 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 10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 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Reading insight

Those who remained in Jerusalem during the second taking of prisoners by Babylon became wicked because of their greed for power. God is giving His forewarning of judgment to them. On the other hand, God declares restoration to the people of Israel who were captured and taken to Babylon.

Ezekiel 11:1-10

- 1 The Spirit lifted me up and brought me to the east gate of the house of the LORD, which faces east. And behold, at the entrance of the gateway there were twenty-five men. And I saw among them Jaazaniah the son of Azzur, and Pelatiah the son of Benaiah, princes of the people.
- And he said to me, "Son of man, these are the men who devise iniquity and who give wicked counsel in this city;
- ³ who say, 'The time is not near to build houses. This city is the cauldron, and we are the meat.'
- 4 Therefore prophesy against them, prophesy, O son of man"
- ⁵ And the Spirit of the LORD fell upon me, and he said to me, "Say, Thus says the LORD: So you think, O house of Israel. For I know the things that come into your mind.
- 6 You have multiplied your slain in this city and have filled its streets with the slain.
- ⁷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Your slain whom you have laid in the midst of it, they are the meat, and this city is the cauldron, but you shall be brought out of the midst of it.
- 8 You have feared the sword, and I will bring the sword upon you, declares the Lord GOD.
- 9 And I will bring you out of the midst of it, and give you into the hands of foreigners, and execute judgments upon you.
- 10 You shall fall by the sword. I will judge you at the border of Israel,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칼을 두려워하던 이들을 향해 하나 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How did God deal with those who did not fear God but feared the sword? (11:10)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되어주시겠다 하셨나요? (16절) 이는어떤 의미인가요? (19-21절) What did the LORD promise to be to the people who were taken to Babylon as prisoners? (11:16) What meaning does this have? (11:19-21)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참 아름다운 연합감리교회, 김성근(WI) 게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 이대규(WI)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가마니 속의 고기

The meat in a cooking pot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야아사냐와 블라댜는 "뜨겁게 열을 가한 가마니속에 있는 고기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의미의 비유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성과 남은 자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유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과도 유사하지요(렘 1:13-15). 그래서, 학자들은 에스겔이 예레미야의 선포(유다 요시왕 때)를 들었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있는 남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결정하셨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하셨습니다(렘 38장).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과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회복의 여정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도 남겨진 곳에서 철저하게 버려짐에 대해서 깊이 고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아사냐와 블라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사람들은 감당해 야 할 삶 대신에 스스로의 꿈을 꾸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의 법을 떠나며 하나님의 자녀 됨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삶을 선택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찾고 구해야 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찾아 걸으시길 기도합니다.

Using the parable "The hot meat in the cooking pot cannot be touched," Jaazaniah and Pelatiah who were left behind in Jerusalem said that Jerusalem and those left behind would be safe. This parable is similar to the prophecy given by Jeremiah (Jer. 1:13–15). Thus, biblical scholars assert that Ezekiel must have heard the declaration of Jeremiah (during the reign of King Josiah of Judah) and was influenced by Jeremiah. However, this proves that the will of God was consistent and unchanging from Jeremiah until Ezekiel's time

Northern Israel was already destroyed by Assyria and southern Judah was about to be destroyed by Babylon. God decided on the destruction of the people of Israel and said that they would be taken to Babylon (Jer. 38). That is, God had planned the journey of restoration through their life without a nation and as prisoners of Babylon. Those left behind in Jerusalem had to go through the same process of painful and thorough meditation about being abandoned

However, Jaazaniah, Pelatiah, and those left behind in Jerusalem had their own dream instead of life that God had planned for them. They strayed from the divine law and chose life far from the life of children of God. Even in the midst of tribulation, there is a "divine way" that we must seek and find. I pray that you will find the way that God has planned and walk that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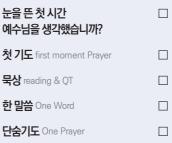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ŒĐ			
	а	1	n
	u		

젓 기노 first moment Praye	91
-------------------------	----

묵상	reading	&	QT
----	---------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October 토 Sat

"혹 생각이 있으리라"(3절)

"Perhaps they will understand"(12:3)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12장



새524장(통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들의 짐을 꾸리라고 하신다. 그리고. 해가 진 뒤에 포로들처럼 거리를 걸으라 하신다. 포로 된 에스겔 의 모습을 증거로 삼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모든 백 성들에게 알리신다.

에스겔 12:8-16

- 8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 르시되
- 9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문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 10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 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 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 11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 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 12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 며 뉴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 라 하라
- 13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 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 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 14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 15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 유데에 헤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리라
- 16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 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 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 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Reading insight

God told Ezekiel to pack their belongings for exile. And upon sunset, God told him to walk to another place like a person going into exile. Through Ezekiel God declares to the people that the judgment of God will be fulfilled.

Ezekiel 12:8-16

- 8 In the morning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 9 "Son of man, has not the house of Israel, the rebellious house, said to you, 'What are you doing?'
- 10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GOD: This oracle concernsthe prince in Jerusalem and all the house of Israel who are in it.'
- 11 Say, 'I am a sign for you: as I have done, so shall it be done to them. They shall go into exile, into captivity.'
- 12 And the prince who is among them shall lift his baggage upon his shoulder at dusk, and shall go out. They shall dig through the wall to bring him out through it. He shall cover his face, that he may not see the land with his eyes.
- 13 And I will spread my net over him, and he shall be taken in my snare. And I will bring him to Babylon, the land of the Chaldeans, yet he shall not see it, and he shall die there.
- 14 And I will scatter toward every wind all who are around him, his helpers and all his troops, and I will unsheathe the sword after them.
- 15 And they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disperse them among the nations and scatter them among the countries.
- 16 But I will let a few of them escape from the sword, from famine and pestilence, that they may declare all their abominations among the nations where they go, and may know that I am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11절) What are the types of judgment permitted by God? (12:11)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의문을 품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28절)

What was the reaction of God toward those who had doubts about the judgment of God? (12:28)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몽고메리주님의 교회, 유혁재(AL)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A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그들이 알리라 They will know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믿지요. 오늘의 본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확증되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리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가 될 모습을 미리 보게 하셨지요. 이로써, 심판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주십니다(3절).

둘째,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알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을 맞이한 이들에게서 확증되고(13절), 이방 민족들 속으로 흩어지고 쫓겨나면서 확증되었고(15절), 또한 목숨을 건지게 하여 남겨진 이들의 자백으로(16절) 확증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또 다양한 고난가운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자백하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행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며(28절),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이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기도합니다.

Believers believe that the world is under the sovereignty of God. Good or bad, th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God. Today's scripture shows how the control of the world by God is witnessed and at the same time also shows the character of God. First, God fore-tells the people. Through Ezekiel God showed the people what exiled life would look like. Hence, God gave the people to be judged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ir own life (12:3).

Second, God lets everyone know. The judgment of God declared through Ezekiel was affirmed by those who were facing imminent death (12:13), was affirmed by those who were dispersed and scattered into gentile countries (12:15), and was affirmed by the confession of those who were spared and left behind (12:16). In the midst of facing death and in the midst of various tribulations, God made all people confess that they are all under the control of the Sovereign LORD.

Third, God thoroughly executes His plan. God declared His Word will be fulfilled without any deviation (12:28). Regardless of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God shows that His Word will be fulfilled. Through all these processes, God shows to all people that He is who He is. I pray that we all start accepting the sovereignty of our LORD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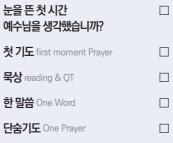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0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주님, 가을이 왔습니다

이상혁목사(개포감리교회)

주예! 가을이 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이기에 그 많은 열매를 통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음 같이(마 7:16) 이제 우리들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갈 6:7). 주께서는 이미 도끼를 나무뿌리에 대시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

그러나아버지시여, 우리의 나무들이, 가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같지는 않은가 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마 21:28).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 오는데,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 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힐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여! 당신은 이 시간 저희들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불속에 던지려 하신다 하였습니다(마 3:1).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 버리십시오(눅 13:6-9).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갈 6:8)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가슴과 손과 발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합니다(마 13:24).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좋은 씨를 심게 하옵소서. 우리의 땅에 돌멩이와 가시덤불이 있다면 제거케 하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요 12:24). 저희들로 하여금 썩어지는 희생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땀과 수고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요 15:5) 함으로써 헌신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October 월 Mon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절)

"Hear the Word of the LORD!"(13: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13장



새250장(통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지적하신다. 여 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이들의 거짓됨을 지적하신다.

에스겔 13:8-16

- 8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9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 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 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 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 10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 11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 12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 13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 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 14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 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 15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 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 16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 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 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Reading insigh

God pointed out false prophets and foolish teachers. God pointed out the falsehood of those prophets who did not listen to the Word of God or prophesied following only their own spirit and their own will.

Ezekiel 13:8-16

- 8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Because you have uttered falsehood and seen lying visions, therefore behold, I am against you, declares the Lord GOD.
- ⁹ My hand will be against the prophets who see false visions and who give lying divinations. They shall not be in the council of my people, nor be enrolled in the register of the house of Israel, nor shall they enter the land of Israel.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GOD.
- 10 Precisely because they have misled my people, saying, 'Peace,' when there is no peace, and because, when the people build a wall, these prophets smear it with whitewash,
- 11 say to those who smear it with whitewash that it shall fall! There will be a deluge of rain, and you, O great hailstones, will fall, and a stormy wind break out.
- 12 And when the wall falls, will it not be said to you, 'Where is the coating with which you smeared it?'
- 13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I will make a stormy wind break out in my wrath, and there shall be a deluge of rain in my anger, and great hailstones in wrath to make a full end.
- 14 And I will break down the wall that you have smeared with whitewash, and bring it down to the ground, so that its foundation will be laid bare. When it falls, you shall perish in the midst of it,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 15 Thus will I spend my wrath upon the wall and upon those who have smeared it with whitewash, and I will say to you, The wall is no more, nor those who smeared it,
- 16 the prophets of Israel who prophesied concerning Jerusalem and saw visions of peace for her, when there was no peace, declares the Lord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리신 징벌은 무엇인가요? (8-9절)

What are the punishments that God passed to those false prophets? (13:8–9)

거짓 예언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 가요? (22절) What did the false teachers do? (13:22)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소망연합감리교회, 조선욱(AR)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형권(AR)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우리도 건져주소서

Please save us too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선포된 거짓된 말은,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10절)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되었지만, 거짓 예언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쁜 의도가 있었겠지요? 혹 좋은 의도는 없었을까요? 혹, 진심으로 평강이 있을 것이라 믿은 이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말을 하는 이들에게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건져 내시겠다 합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렘 17:9). 또한 양심도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고전 8:7, 딤전 4:2, 딛 1:15). 위로와 격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누어져야 하고, 만약 성경의 말씀 안에서 위로할 수 없다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과 같아집니다. 매순간,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심령을 따르지 않으며, 거짓됨에서 우리도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The false word spoken upon the people of Israel was, "Peace, when there was no peace" (13:10). Though the judgment of God was declared through the prophets, the so-called false prophets proclaimed their word following only their own spirit and their mind. Why did they do it? Was there bad intention? Or maybe there was good intention? Or weren't there people who believed that true peace existed? God was forewarning the false teachers and declared that He Himself would save His own people.

We sometimes say words of comfort and encouragement. At this moment, we need to remember that there is a danger if our words of comfort and encouragement arise from our own mind.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beyond cure ···" (Jer. 17:9). Also we should remember that our conscience may be corrupted (1 Cor. 8:7, 1 Tim. 4:2, Titus 1:15). Even our comfort and encouragement should be shared with the Word of God in our prayers, and if we cannot comfort with the Word of the Scripture, we need to do it with care. Otherwise contrary to our good intention, we will become false prophets in front of God. Every moment in our life, I pray that we will be saved from falsehood and not follow just our own mind and spirit.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2

October 화 Tue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라"(4절)

"I the LORD will answer in keeping with his great idolatry"(14:4)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14장



새527장(통317장) 어서 돌아 오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장로들이 앞으로의 일들을 알기 위 해서 에스겔에게 나아온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지적하시며, 모두 각자의 죄로써 심판을 받고 각자의 의 로써 건져냄을 받는다 하신다. 노아, 다니엘, 욥이 살아 있다 해도 예외는 없다 하신다.

에스겔 14:1-8

- 1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아와 내 앞에 앉으니
- 2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3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 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 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 4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 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 로 보응하리니
- 5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 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 들을 잡으려 함이라
- 6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 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 7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 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 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 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 8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 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Reading insight

The elders of Israel exiled in Babylon came to Prophet Ezekiel to find out what would happen in the future. God pointed out the idols in the elders' hearts and told them that each would be judged according to their sins and each would be saved according to their righteousness. Even if Noah, Daniel, or Job were alive, there would be no exception.

Ezekiel 14:1-8

- 1 Then certain of the elders of Israel came to me and sat before me.
- 2 An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 3 "Son of man, these men have taken their idols into their hearts, and set the stumbling block of their iniquity before their faces. Should I indeed let myself be consulted by them?
- 4 Therefore speak to them and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GOD: Any one of the house of Israel who takes his idols into his heart and sets the stumbling block of his iniquity before his face, and yet comes to the prophet, I the LORD will answer him as he comes with the multitude of his idols.
- 5 that I may lay hold of the hearts of the house of Israel, who are all estranged from me through their idols.
- 6 "Therefore say to the house of Israel, Thus says the Lord GOD: Repent and turn away from your idols, and turn away your faces from all your abominations.
- **7** For any one of the house of Israel, or of the strangers who sojourn in Israel, who separates himself from me, taking his idols into his heart and putting the stumbling block of his iniquity before his face, and yet comes to a prophet to consult me through him, I the LORD will answer him myself.
- 8 And I will set my face against that man; I will make him a sign and a byword and cut him off from the midst of my people,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보응을 피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하나요? (6절) How could those who serve idols escape from the retribution of God? (14:6)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내리시는 보응의 수단은 무엇인가요? (21절)

What means of retribution does God apply to those who serve idols? (14:21)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김찬홍(AZ)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조형(AZ)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Answer, fix, you, (answer is fixed, you need only to respond!)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이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진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우상을 (자신의)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우상)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라고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란, 어떠한 만들어진 형상을 포함하여, 1) '사람이하나님 뜻 이외의 것을 나의 마음에 품고 2) 그것을 나의 앞에 세우고 3)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스스로 비는 모든 행위'일 것입니다.

요컨대,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순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답을 듣고자 에스겔에게 찾아왔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라". 즉, "너 스스로를 위해서 품은 모든 것을 헤아려벌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주인이다'란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선물이지, 맡겨 둔 선물은 아닙니다. 누가 시간, 체력, 재물을 주셨나요? 누구의 것인가요? 묵상해 보십시오.

God does not forgive idols, and idols are all man-made objects set up by man. Thus God said, "Israelites set up idols in their hearts and put wicked stumbling blocks before their faces." Idols include all man-made objects: (1) people keep things that are not the will of God in their hearts, (2) those things are kept in front of them, and (3) all acts of praying for fulfillment of the idolatrous objects.

In other words, as soon as I begin to act as if "I am the master of myself," I begin to serve an idol. God knew what the elders had in mind. Perhaps the elders came to Ezekiel hoping to hear what they wished to hear. But God said to the elders, "I will answer in keeping with his great idolatry" (14:4). In other words, "I will punish you in accordance with the wicked minds you yourselves possess." If we utter and act for ourselves with the mindset of "I am my own master" even if for something minor, it will be exposed to God.

Furthermore, God's grace and mercy are gifts from God when we fear God. They are not gifts that we had previously consigned with God to be claimed by us. Who has given us time, health, and materials? Who do they belong to? Please meditate on thi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October 수 Wed

예루살렘의 가증함

The Abomination of Jerusalem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15-16장



새450장(통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짓된 낙관주의 를 지적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가증 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로는 '열매가 없다면 땔감으 로 밖에 사용 못 할 포도나무(예루살렘)'와 '음녀 보다 더한 예루 살렘'을 설명하신다.

에스겔 16:15-22, 34, 47

- 15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 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 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 16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 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 후무하니라
- 17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 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 18또 네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 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 19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 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 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20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 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 21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 22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 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 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 34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 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 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 47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 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 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Reading insight

The Lord uses a metaphor to point out the false optimism of Israel and the abomination of living a sinful life with the things of the Lord. The metaphors that the Lord uses is the metaphor of "a useless vine" and "an adulteress wife."

Ezekiel 16:15-22, 34, 47

- 15 "But you trusted in your beauty and played the whore because of your renown and lavished your whorings on any passerby; your beauty became his.
- 16 You took some of your garments and made for yourself colorful shrines, and on them played the whore. The like has never been, nor ever shall be.
- 17 You also took your beautiful jewels of my gold and of my silver, which I had given you, and made for yourself images of men, and with them played the whore.
- 18 And you took your embroidered garments to cover them, and set my oil and my incense before them.
- 19 Also my bread that I gave you--I fed you with fine flour and oil and honey--you set before them for a pleasing aroma; and so it was, declares the Lord GOD.
- 20 And you took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whom you had borne to me, and these you sacrificed to them to be devoured. Were your whorings so small a matter
- 21 that you slaughtered my children and delivered them up as an offering by fire to them?
- 22 And in all your abominations and your whorings you did not remember the days of your youth, when you were naked and bare, wallowing in your blood.
- 34 So you were different from other women in your whorings. No one solicited you to play the whore, and you gave payment, while no payment was given to you; therefore you were different.
- ⁴⁷ Not only did you walk in their ways and do according to their abominations; within a very littl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에스겔 15장 5절의 의미를 묵상 해 보세요.

Reflect on the meaning of Ezekiel 15:5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어떤 모습인가요? (16:59-63) What is God's judgment like? (16:59-63)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CA)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

내가 나에게 빠지다

Obsessed with Self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마음과 생각은 다음과 같이 확대 적용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시간/물질/여유는… 내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우상을 품은 모습들이라고 설명드린다면 숨 막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에스겔 16:1-14절까지의 말씀에도 숨이 막히셨을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는 질투와 복수의 하나님이 체험되셨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질투[히브리어, 카나kan-naw]의 하나님이십니다(출 34:14). 히브리 단어 [카나]는 감정적인 질투(jealous)와 열심을 낸다는 (zealous)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을 내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심을(사랑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시작은 자아도취적 모습이었는데 (15절), 그 나중은 아무런 이유와 목적도 없이 스스로를 망가트리는 모습이되었습니다(34절).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모습이었기에, 심판과 수치를 통해서 깨닫고 회복케 하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은 소돔과 사마리아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사람' 자체에만 집중하면, 그 마지막은 '사람됨을 벗어나,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I am my master" is a thinking that views one's mind, one's body, one's time and one's possessions as one's own. Would you be surprised if you were told that such thinking is pregnant with an idolatrous thinking? If so, then you probably were also surprised as you read Ezekiel 16:1–14 because, in that scripture, we meet a God who is more about jealousy and revenue than kind.

In fact, God is a jealous God. The word "jealous" in Hebrew is "qanna," which means being jealous emotionally as well as being zealous. So we can interpret God's jealousy as being zealous for the people of Israel. However, the people of Israel began to cheapen God's zeal (love) for them. Not only they disobeyed God's will, they also behaved in ways that were hard to accept even by the people of this world. They started out as narcissistic (16:15) but ended up destroying themselves without any purpose or meaning (16:34).

As what the Israelites did was unacceptable even in the eyes of the gentiles, the Lord decides to bring restoration through judgement and placing shame on them. And the Lord says that this kind of restoration will also take place in Sodom as well as in Samaria. Today's scripture shows us that when the "self" becomes its ultimate focus, the final end will be the loss of the self and even its huma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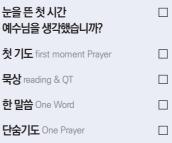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October 목 Thu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다

Speaking Using a Riddle and a Parabl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겤 Ezekiel 17장



새70장(통79장) 피난처 있으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하신 다(1-10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지하다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 할 것을 설명해 주시고(11-21절),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알게 하 신다(22-24절).

에스겔 17:17-24

- 17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 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 주지 못하리라
- 18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 지 못하리라
- 19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 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 20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 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 서 심파학지며
- 21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 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 22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 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 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 23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 24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 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 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Reading insight

God gives the words of judgment using a parable of an eagle (17:1–10). God says that Israel will meet its end at the hands of Babylon while looking to Egypt for deliverance (17:11–21) and God also describes God's plan (17:22–24).

Ezekiel 17:17-24

- 17 Pharaoh with his mighty army and great company will not help him in war, when mounds are cast up and siege walls built to cut off many lives.
- 18 He despised the oath in breaking the covenant, and behold, he gave his hand and did all these things; he shall not escape.
- 19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As I live, surely it is my oath that he despised, and my covenant that he broke. I will return it upon his head.
- 20 I will spread my net over him, and he shall be taken in my snare, and I will bring him to Babylon and enter into judgment with him there for the treachery he has committed against me.
- 21 And all the pick of his troops shall fall by the sword, and the survivors shall be scattered to every wind,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I have spoken."
- 22 Thus says the Lord GOD: "I myself will take a sprig from the lofty top of the cedar and will set it out. I will break off from the topmost of its young twigs a tender one, and I myself will plant it on a high and lofty mountain.
- 23 On the mountain height of Israel will I plant it, that it may bear branches and produce fruit and become a noble cedar. And under it will dwell every kind of bird; in the shade of its branches birds of every sort will nest.
- **24** And all the trees of the field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I bring low the high tree, and make high the low tree, dry up the green tree, and make the dry tree flourish. I am the LORD; I have spoken, and I will do i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남유다의 언약을 어떻게 보시나요? (18-19절)

How does the Lord view the covenant between Babylon and Judah? (17:18–19)

하나님 나라의 섭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24절)

What does God's providence look alike? (17:24)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CA)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이석부(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순종 Vs 복종

Obedience vs Submission

존 비비어 목사는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 만약, 명백한 죄가 드러났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세상 속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세워졌음을 인정하며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속, 순종이란 단어는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순종에는 머릿속 계산이 적고, 복종에는 태도를 결정해야 하기에 머릿속 계산이 넘치게 됩니다. 에스겔 17장의 내용은 예레미야 21장과 열왕기하 25장과 연결되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머릿속 계산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회개하고 죄의 대가를 달게 받는 '순종'을 택하며 바벨론으로 갔다면 좋았겠지만, 머리로 계산을 하다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머리로 계산할 분야가 많아졌고, 계산을 더 하라고 부추기는 경향도 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순종'이란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유일한 방법이고, 세상의 계산을 넘어서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여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이기시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In his book, "Obedience," Pastor John Bevere writes, "Obedience deals with our actions. Submission deals with the attitude of our hearts." He argues that, unless one is guilty of a clear sin, the authority of a leader in the world must be honored and respected because God has allowed that person to have the authority. In the Bible, the word "obedience" has the meaning of "giving ear or carefully listening (discerning God's will)."

Moreover, since obedience requires action more than thinking and submission requires attitude, one's thinking can be conflicted between the two. The story of Ezekiel Chapter 17 is related to the story found in Jeremiah Chapter 21 and 1 King Chapter 25 where king Zedekiah experiences defeat as he tried to negotiate his fate between Babylon and Egypt.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him to choose "obedience" and go to Babylon, listening to God's Word and repenting of his sins, rather than trying to negotiate in his 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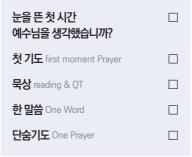
Our world today has become more complex than it was in the past. There's lot to process and negotiate in our mind and the world we live in encourages people to be more calculative. In this kind of world, we follow God's plan for our lives through "obedience" and through "obedience' live victorious lives. I pray that you will spend more time studying the Scripture and live a victorious life through "obedienc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4	Я	N.
	П	
ч		7

	_	
4	<u></u>	
u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October 금 Fri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3절)

"His blood will be on his own head" (18:13)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18장



새259장(통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심판이 정의롭다 말씀하신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선조 들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말씀하신다.

에스겔 18:19-31

- 19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 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모 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 20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 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 에게로돌아가리라
- 21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 니할 것이라
- 22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 23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 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 하지 아니하겠느냐
- 24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 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 25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 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 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 26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 27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 혼을 보전하리라
- 28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 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29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 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 니한 것 아니냐
- 30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 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 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 지 아니하리라
- 31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Reading insigh

The Lord says that His judgment against Judah is just. However, the people think that the Lord's judgment is unjust. They think that Judah is suffering because of the sins of their ancestors. To this, the Lord tells them to turn away from all their offenses, get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and do what is just and right.

Ezekiel 18:19-31

- 19 "Yet you say, 'Why should not the son suffer for the iniquity of the father?' When the son has done what is just and right, and has been careful to observe all my statutes, he shall surely live.
- 20 The soul who sins shall die. The son shall not suffer for the iniquity of the father, nor the father suffer for the iniquity of the son. The righteousness of the righteous shall be upon himself, and the wickedness of the wicked shall be upon himself.
- 21 "But if a wicked person turns away from all his sins that he has committed and keeps all my statutes and does what is just and right, he shall surely live; he shall not die.
- 22 None of the transgressions that he has committed shall be remembered against him; for the righteousness that he has done he shall live.
- ²³ Have I any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declares the Lord GOD, and not rather that he should turn from his way and live?
- 24 But when a righteous person turns away from his righteousness and does injustice and does the same abominations that the wicked person does, shall he live? None of the righteous deeds that he has done shall be remembered; for the treachery of which he is guilty and the sin he has committed, for them he shall die.
- 25 "Yet you say, 'The way of the Lord is not just.' Hear now, O house of Israel: Is my way not just? Is it not your ways that are not just?
- 26 When a righteous person turns away from his righteousness and does injustice, he shall die for it; for the injustice that he has done he shall die.
- 27 Again, when a wicked person turns away from the wickedness he has committed and does what is just and right, he shall save his life.
- 28 Because he considered and turned away from all the transgressions that he had committed, he shall surely live; he shall not die.
- 29 Yet the house of Israel says, 'The way of the Lord is not just.' O house of Israel, are my ways not just? Is it not your ways that are not just?
- 30 "Therefore I will judge you, O house of Israel, every one according to his ways, declares the Lord GOD. Repent and turn from all your transgressions, lest iniquity be your ruin.
- 31 Cast away from you all the transgressions that you have committed, and make yourselves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Why will you die, O house of Israe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혈육관계를 어떻 게 바라 보시나요? (4절) How does the Lord view the parents as well as the child? (18: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어떤 모습인가요? (30-31절) What is the repentance that the Lord is looking for? (18:30-31)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CA) 남가주 주님의 교회, 김낙인(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

곱씹지 않으리라 I Will Not Remember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유인즉,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기준이 되는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기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심판의 기준이 필요했을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사람들 가운데서 기준을 찾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죄를 더 많이 졌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가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처럼, 범죄함도 공의도 지난 일이라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 zakhar]는 "(알아보기위해) 표하다, 기억하다, 언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상으로 비교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카르]를 하지 않으시겠다하십니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 다시금 곱씹으며 기억해 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난 잘못을 곱씹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현재형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 공의를 떠나 현재 범죄하면 심판하십니다.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지난 일을 곱씹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The people of Judah are complaining about the Lord's judgement. It is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y are being punished for the sins of their ancestors. When people try to understand something, they first look for something to use as a standard for their understanding. They probably also needed something to evaluate the Lord's judgement.

Even though the Lord is the standard of judgment, they are using other people as their standard of argument saying, "Our ancestors are more sinful than we are." The Lord judges people based on their individual actions. Also, the Lord's judgment has two important characteristics. As stated in verses 22 and 24, the Lord does not remember any past sins or righteous things. The Hebrew word "zakhar" means "making a mark, remembering, or commenting." There may be others who can be used for comparison. But the Lord will not "zaw-kar."

People have the tendency to remember or dwell on the past wrongs of other people whom they have already forgiven. But the Lord will never remember the past wrongs. For this reason, the Lord will always forgive those who come to Him in repentance but judges even a righteous person when the person turns from his/her righteousness and commits sin. Let us examine our hearts everyday as we remember the Lord who does not remember our past sin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



October 토 Sat

애가를 지어 부르라

Take Up a Lament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19장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사자의 비유로 애가(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신다. 유다의 두 왕, 여호아하스(애굽에서 죽고)와 여호 야기(바벨론으로 끌려감)의 짧은 통치 기간과 비참한 최후가 노 래로 지어진다.

에스겔 19:1-9

- 1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 2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 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 르는데
- 3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 4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 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 5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 6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 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 7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 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 8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 9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 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Reading insigh

Using lion as a metaphor, the Lord calls for a lament. The lament sings about the reign of two kings of Judah, Jeho-ahaz (who dies in Egypt) and Jehoiachin (who is exiled to Babylon), and their tragic ending.

Ezekiel 19:1-9

- And you, take up a lamentation for the princes of Israel,
- ² and say: What was your mother? A lioness! Among lions she crouched; in the midst of young lions she reared her cubs.
- ³ And she brought up one of her cubs; he became a young lion, and he learned to catch prey; he devoured men.
- ⁴The nations heard about him; he was caught in their pit, and they brought him with hooks to the land of Egypt.
- ⁵ When she saw that she waited in vain, that her hope was lost, she took another of her cubs and made him a young lion.
- ⁶ He prowled among the lions; he became a young lion, and he learned to catch prey; he devoured men,
- ⁷ and seized their widows. He laid waste their cities, and the land was appalled and all who were in it at the sound of his roaring.
- 8 Then the nations set against him from provinces on every side; they spread their net over him; he was taken in their pit.
- ⁹ With hooks they put him in a cage and brought him to the king of Babylon; they brought him into custody, that his voice should no more be heard on the mountains of Israe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셨을까요? (참고, 신 31:19) Why do you think the Lord called the people to take up a lament? (See, Deut. 31:19)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드림교회, 정영희(CA)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림학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약육강식의 세상 The Survival of the Fittest

동물들의 세계를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강자와 약자의 먹이 사슬이 존재하고, 이것이 자연을 유지하는 원리라 이해합니다. 심지어, 인간도 포유류에 포함시키고, 인간의 세상도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됨을 인정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이사야서 11장과 35장을 천국의 모습으로 이해한다면 약육강식의 세상은 분명 천국은 아닙니다.

에스겔 19장 3절과 6절의 기록을 보면, 사자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분명 강대국 이방인들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의 악행은 분명히 자국민을 상대로 한행동이었을 겁니다. 바벨론과 애굽에는 대항하지 못하면서도 자국민들에게 악행을 했던 두 왕을 '사람을 삼키는 존재'로 표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를(nation) 지칭하는 단어 [고이 goy] 속에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동물들의 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루어 낼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으로(불법과 악을행할 때)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됨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은 동물로 전락합니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동물로 살 것인가?" 우리도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The animal kingdom is a world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 clear food chain exists between different animals who are strong and weak. This food chain is part of the natural law in the wild. The principle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s at work not only in the animal kingdom but also in the world of human beings. Do you think this is a providence of God who created this world? If we understand Isaiah Chapter 11, verse 35 as a picture of heaven, then the world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s clearly not heaven.

According to Ezekiel chapter 19 verse 3 and 6, a lion learned to "tear the prey and he became a man-eater." Here, the "man" does not refer to the people of strong foreign nations. If so, then evil deeds of Jehoahaz and Jehoiachin were probably directed against their own people. The Lord described the two kings who couldn't stand up to Babylon and Egypt but carried out wicked things to their own people as "a man-eater."

One thing to note is that the word "goy" that refers to a foreign nation means not only "nation or people but at the same time "a heard of animals." Here, the point that we need to consider is that, even though the Lord created human beings in God's image with power to discern and carry out God's will, they have become like "animals" by straying from God's will and following evil and wicked ways in life. Jehoahaz, Jehoiachin and gentile nations degenerate to the level of being like an animal. We must also consider whether we will lives as "people" or as "animal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7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문틀과 문짝

유양진 목사(버몬트연합감리교회)

선후배로 만나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된 캠퍼스 커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의논 끝에 남자가 먼저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새댁은 휴학계를 내고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새댁은 그야말로 첩첩산중 시골에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란 며느리는 시골에서 더이상 살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업포기는 물론, 결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숨 막히는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시집살이에 대한 의미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조그만 보따리를 챙겨 시아버님에게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오려할 때에 시아버님께서 문짝을 짜고 있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짜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지게 짜는 것이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삐딱하게 문짝을 짜는 시아버님의그 어이없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하루라도 빨리 이 시댁을 떠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시아버님이 비록 시골에 사시는 분이긴 했으나 겪어보니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이셨는데, 왜 문짝을 저렇게 삐딱하게 짜고 계실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필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되돌아와서, 아직도 문짝을 만들고 계시는 시아버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문짝을 그렇게 비뚤어지게 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시아버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문틀이 삐딱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며느리는 마치 삶의 큰 비밀을 깨친 것처럼 또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



다. 문짝은 문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는 짐 보따리를 풀고, 떠나려 했던 자신의 신중치 못한 결정에 대한 용서를 빌고, 그 시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짝'은 '문틀'에 맞춰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만의 고유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이라는 정경(正經)이 있습니다. 그 속엔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 유한 틀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지나간 유물(遺物)쯤으로 생각하고, 그 문틀을 뜯어내고 자기들 취향에 맞는 새로운 틀을 짜려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십자가는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은 세상 풍조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 변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도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의 목회방법이 곧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쓴 책의 참고서일 뿐입니다. 이젠 자기들이 성경을 씁니다. 언제부터인가 'Acts 29'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성령)의 역사를 이어나가자는 뜻이라는 것을 알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과 성공적인 목회방법이 진리입니다. 교회만 부흥된다면 도덕적이지 못하고 상식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진리로 여기려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삶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면서 문틀을 뽀개고 새롭게 단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언덕으로 오르는 길은 이미 황폐화된 지 오래입니다. 오르려 하지도 않고 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 '문틀'에 맞춰 '문짝'을 짜 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이어야 하고 또한 자존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래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October 월 Mon

"내 이름을 위학이라"(8절)

"For my name's sake"(20:8)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20장



새531장(통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에스겔을 찾아 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신 이유와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 님께서는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 하신다.

에스겔 20:10-13, 38-44

-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 게 하고
- 11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 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 12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 13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 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 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 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 38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 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 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 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 3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 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 40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 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 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 구하리라
- 41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 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 42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일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 43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 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 44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 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 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Reading insight

The elders of Israel come to Ezekiel to inquire of Jehovah God's will. Jehovah God tells the people why he gave them statutes and ordinances and why he gave them the Sabbath while they were in Egypt. However, the people did not follow God's guidance and command. Therefore, God said He would not answer the questions of those who did not follow his will and profaned the name of Jehovah.

Ezekiel 20:10-13, 38-44

- 10 So I led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and brought them into the wilderness.
- 11 I gave them my statutes and made known to them my rules, by which, if a person does them, he shall live.
- 12 Moreover, I gave them my Sabbaths, as a sign between me and them, that they might know that I am the LORD who sanctifies them.
- 13 But the house of Israel rebelled against me in the wilderness. They did not walk in my statutes but rejected my rules, by which, if a person does them, he shall live; and my Sabbaths they greatly profaned. "Then I said I would pour out my wrath upon them in the wilderness, to make a full end of them.
- 38 I will purge out the rebels from among you, and those who transgress against me. I will bring them out of the land where they sojourn, but they shall not enter the land of Israel.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 **39** "As for you, O house of Israel, thus says the Lord GOD: Go serve every one of you his idols, now and hereafter, if you will not listen to me; but my holy name you shall no more profane with your gifts and your idols.
- **40** "For on my holy mountain, the mountain height of Israel, declares the Lord GOD, there all the house of Israel, all of them, shall serve me in the land. There I will accept them, and there I will require your contributions and the choicest of your gifts, with all your sacred offerings.
- 41 As a pleasing aroma I will accept you, when I bring you out from the peoples and gather you out of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been scattered. And I will manifest my holiness among you in the sight of the nations.
- 42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bring you into the land of Israel, the country that I swore to give to your fathers
- 43 And there you shall remember your ways and all your deeds with which you have defiled yourselves, and you shall loathe yourselves for all the evils that you have committed.
- 44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deal with you for my name's sake, not according to your evil ways, nor according to your corrupt deeds, O house of Israel, declares the Lord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 는 무엇인가요? (12절) Why did God give them the Sabbath? (20:12)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하셨나요?(38절) If they rebelled against God and sinned, what did God do? (20:38)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CA)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창민(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스스로 미워하리라"

"You will hate yourselve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언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출애굽 사건, 광야의 삶 가운데 주신 율법과 계명, 그리고 심판의 사건까지 자세히 알리셨지요. 에스겔 18장에서는 지난 일을 기억치 않으시겠다 했는데, 20:5-26절에서는 지난 일을 정확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일을 곱씹으신 것은 아닙니다. 지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여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역사 속 죄를 자세히 알리신 겁니다.

더욱이, 삶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묻기 전, 질문을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물으라고 역사를 알게 하신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심판 가운데서도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 나아오는 이들을 다시금 받아 주시며 여호와의 거룩함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욱이, 역사를 살펴 죄를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 이들은 반드시이러한 모습이 될 것임을 명시하셨습니다: "스스로 미워하리라"(43절). 과거를 돌아보아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반드시 죄를 미워하게 되며,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워하시나요? 자책 말고, 죄를 깊이 미워하며 여호와 앞으로 나오시고 여호와 앞에 머물러 계신가요?

God mentioned Israel's past history. He made known to people in detail the covenant with Abraham, the Exodus event, and the laws and commandments given in the wilderness. In Ezekiel 18, God said he would not remember the past, but in 20:5–26, he made sure to record the past. However, God did not reflect on the past. In the hope that they would not become those who repeat the same sins because they do not remember the past, God revealed the sins of the past in detail. God made them aware of history so that they would know who God is.

God promises to welcome those who come to Him once again, realizing divine leading through history, turning their hearts in the midst of judgment, and promising to make them aware of the holiness of the Lord. Moreover, he has made it clear that those who have looked through history and realized their sins and have turned their hearts to God will "hate themselves" (20:43). If you look back on your past and realize that you are a sinner, you will inevitably hate sin and have no choice but to come before the name of Jehovah. Do you hate yourself? Don't blame yourself, but come to the Lord with a deep hatred of sin and remain before the Lor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October 화 Tue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I will cut off from you both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21장



새586장(통52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여호와의 심판이 '칼'로 비유된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최후를 맞을 모습을 보여 주신다. 또한, 이방의 나라 암몬도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에스겔 21:1-7, 31-32

1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2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 3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 4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 5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 6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 7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 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 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 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하라
- 31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 32 네가 불에 섶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 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Reading insight

Jehovah's judgment is likened to a "sword". The Lord shows the destruction of southern Judah by Babylon and the end of King Zedekiah. Also, the Gentile nation of Ammon will be judged and be completely destroyed.

Ezekiel 21:1-7, 31-32

-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 ² "Son of man, set your face toward Jerusalem and preach against the sanctuaries. Prophesy against the land of Israel
- ³ and say to the land of Israel, Thus says the LORD: Behold, I am against you and will draw my sword from its sheath and will cut off from you both righteous and wicked.
- ⁴ Because I will cut off from you both righteous and wicked, therefore my sword shall be drawn from its sheath against all flesh from south to north.
- ⁵ And all flesh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I have drawn my sword from its sheath; it shall not be sheathed again.
- **6** "As for you, son of man, groan; with breaking heart and bitter grief, groan before their eyes.
- 7 And when they say to you, 'Why do you groan?' you shall say, 'Because of the news that it is coming. Every heart will melt, and all hands will be feeble; every spirit will faint, and all knees will be weak as water. Behold, it is coming, and it will be fulfilled,'" declares the Lord GOD.
- 31 And I will pour out my indignation upon you; I will blow upon you with the fire of my wrath, and I will deliver you into the hands of brutish men, skillful to destroy.
- 32 You shall be fuel for the fire. Your blood shall be in the midst of the land. You shall be no more remembered, for I the LORD have spoke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모습인가 요? (4-5절)

What does God's judgment look like? (21:4-5)

암몬을 향한 심판은 어떤 모습인 가요? (31-32절)

What will the judgment on Ammon look like? (21:31–32)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 신병옥(CA)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안정섭(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슼피 탄식하라

Groan before them with bitter anguish and a broken heart

여호와의 칼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임하는데, 그 이유는 의인과 악인 모두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11,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바벨론의 칼/권력의 형태로도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지요.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죄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고, 누군가는 바벨론의 칼만 무서워하며 죄는 깨닫지 못하게 되지요. 이 가운데, 죄를 죄로 깨닫는 이들은 '의인'으로 확정되고, 끝까지 죄를 깨닫지 못한 이들은 '악인'으로 남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라고 하셨는데, 이는 심판이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절박함을 드러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혹, 백성들의 마음이 녹고, 손이 약해지고, 영이 쇠하여 돌아오게 될지 모를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간절함으로 드러난 말씀입니다(참고, 겔 12:3).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백성들은 이웃을 향해서도 슬피 탄식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의탄식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Jehovah's sword is upon both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because both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have to examine their own lives. God's Word says,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Hebrews 4:12). In other words, the sword of Jehovah is the Word of Jehovah God that must be fulfilled, so it must be manifested in the form of the sword/power of Babylon.

When being judged by the sword of the Word, some realize that they had a sinful thought and will, but some fear only the sword of Babylon and do not realize their sin. Those who realize sin as a sin are confirmed as "righteous", and those who do not realize their sin to the end remain "wicked". Jehovah God said to Ezekiel, "Groan before them with broken heart and bitter grief." This is a command to reveal urgency before disaster strikes. It expresses the earnestness of God's mercy for those who may come back because the hearts of the people will disintegrate, their hands will become shaky, and their spirits will grow unsteady (See, 12:3).

The people, who realized their sin and began to hate it, were commanded to mourn for their neighbors. I pray that you will set aside time to see what is in your groanings.

Journaling with Jesus

ㅇ느이	フル	Than	ke N	lote
		I I ICII I	V 9 I 1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

October 수 Wed

나를 잊어버렸다

You have forgotten m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22장



새279장(통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신다. 그들의 죄는 우 상을 만든 죄(3-4절),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죄(7절), 음행하는 죄(9-11절) 그리고 불의를 행한 죄(12-13절)이다. 또한, 제사장 들과 고관들의 부정하고 거짓된 행위를 지적하신다.

에스겔 22:6-16

- 6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 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 7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 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 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 8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 9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 었으며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 었으며 네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 10 네 가우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 하는 자도 있었으며
- 11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 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 며 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 과 관계하였으며
- 12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 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 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 13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 14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 루리라
- 15 내가 너를 뭇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헤 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 16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 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Reading insight

God speaks judgment against Jerusalem. Their sins are the sin of making idols (22:3–4), the sin of harassing the socially weak (22:7), the sin of fornication (22:9–11), and the sin of committing injustice (22:12–13). He also points out the unclean and false conduct of the priests and dignitaries.

Ezekiel 22:6-16

- **6** "Behold, the princes of Israel in you, every one according to his power, have been bent on shedding blood.
- **7** Father and mother are treated with contempt in you; the sojourner suffers extortion in your midst;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are wronged in you.
- 8 You have despised my holy things and profaned my Sabbaths
- ⁹ There are men in you who slander to shed blood, and people in you who eat on the mountains; they commit lewdness in your midst.
- 10 In you men uncover their fathers' nakedness; in you they violate women who are unclean in their menstrual impurity.
- 11 One commits abomination with his neighbor's wife; another lewdly defiles his daughter-in-law; another in you violates his sister, his father's daughter.
- 12 In you they take bribes to shed blood; you take interest and profit and make gain of your neighbors by extortion; but me you have forgotten, declares the Lord GOD.
- 13 "Behold, I strike my hand at the dishonest gain that you have made, and at the blood that has been in your midst.
- 14 Can your courage endure, or can your hands be strong, in the days that I shall deal with you? I the LORD have spoken, and I will do it.
- 15 I will scatter you among the nations and disperse you through the countries, and I will consume your uncleanness out of you.
- 16 And you shall be profaned by your own doing in the sight of the nations,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15-16절) How did God punish the unrighteous? (22:15-16)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제 역할 을 못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5, 27절)

How does God see prophets and leaders failing to do their jobs? (22:25, 27)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류재덕(CA) 버클리새교회, 김종식(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네 가운데에서 In you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며,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했다 하십니다. 6-12절에 죄가 열 거되며, 지속적으로 총 9번 등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네 가운데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타베크 tawekh], "가운데, 안으로"라는 의미로 7절과 9절에서 한번 씩 사용되고, 나머지는 히브리어 [아브ab], "아버지, 하나님, 조상, 통치자"란 의미로 대 개 하나님을 지칭하여 사용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본문 말씀에 적용해서 이 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구성해 보면, '1)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저지르는 모습, 2)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라고 해석되지요. 그 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인지한다면, '죄를 짓는다' 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죄를 짓는 모습이고, 더 정확히 말해서 '죄'란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 하는 것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 님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해하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이간하고. 하나님을 음행하고, 하나님의 하체를 더럽혔다'고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쉽 고 가볍게 짓는 죄도 하나님께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God specifically lists the sins of Israel and says that they violated the law (given through Moses) and committed abominations to God. Sins are listed in verses 6–12, and there is an expression that appears repeatedly a total of 9 times. It is the expression "in you." But this expression consists of two words. Hebrew [tawekh], used once in verses 7 and 9 means "middle, inside" and the rest is Hebrew [ab], meaning "father, God, ancestor, ruler" usually referring to God. If we apply these meanings to the text and compose the image of the Israelites, it is interpreted as (1) sinning among people and (2) sinning in the presence of God.

However, if we recognize that man was created in God's image, the meaning of "sin" means that a person in God's image violates God's image. More precisely, "sin" is not directed toward people, it is directed to God. It becomes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 people of Israel "disrespected God, abused God, harmed God, defiled God, separated from God, committed fornication to God, and defiled God's lower body." We must not forget that even the easiest and lightest sins are committed against Go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

묵상 reading & QT 한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영기품의 언덕으로



21

October 목 Thu

오홀라와 오홀리바

Oholah and Oholibah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23장



새276장(통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신다. 두 여인, 오홀 라(뜻, '그녀의 장막'-사마리아)와 오홀리바(뜻,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음'-예루살렘)의 음행을 비유로, 이스라엘의 죄가 사마리 아의 죄와 다르지 않음을 알리신다.

에스겔 23:24-26, 43-49

- 24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 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 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 25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 26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 43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 44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 같이 음란 한 여인 오홐라와 오홐리바에게 나왔은즉
- 45 의인이 가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 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 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 4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 47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 48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 49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 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

God points out Israel's sin in parables. Through the parable of the fornication of two women, Oholah (meaning: 'her tent' – Samaria) and Oholibah (meaning: 'my tent is in her' – Jerusalem), the sin of Israel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Samaria.

Ezekiel 23:24-26, 43-49

- 24 And they shall come against you from the north with chariots and wagons and a host of peoples. They shall set themselves against you on every side with buckler, shield, and helmet; and I will commit the judgment to them, and they shall judge you according to their judgments.
- 25 And I will direct my jealousy against you, that they may deal with you in fury. They shall cut off your nose and your ears, and your survivors shall fall by the sword. They shall seize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and your survivors shall be devoured by fire.
- **26** They shall also strip you of your clothes and take away your beautiful jewels.
- 43 "Then I said of her who was worn out by adultery, Now they will continue to use her for a whore, even her!
- 44 For they have gone in to her, as men go in to a prostitute. Thus they went in to Oholah and to Oholibah, lewd women!
- 45 But righteous men shall pass judgment on them with the sentence of adulteresses, and with the sentence of women who shed blood, because they are adulteresses, and blood is on their hands."
- 46 For thus says the Lord GOD: "Bring up a vast host against them, and make them an object of terror and a plunder.
- 47 And the host shall stone them and cut them down with their swords. They shall kill their sons and their daughters, and burn up their houses.
- 48 Thus will I put an end to lewdness in the land, that all women may take warning and not commit lewdness as you have done.
- 49 And they shall return your lewdness upon you, and you shall bear the penalty for your sinful idolatry,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 의 손에 맡기셨는데 그 모습은 어 떠했나요? (24-26절) What happened to the Israelites when God gave them into the hands of the Gentiles? (23:24-26)

이방을 따르며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이 어떻게 묘사되었나요? (31절) How was the judgment upon Israel, who followed the Gentiles and worshiped idols, described? (23:31)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델연합감리교회, 한인희(CA) 산타마리아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남기성(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정신이 깨어나길… Wake yourself up…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심판의 도구는 대부분 이방민족들을 사용하시 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드러난 심판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공통 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1) "스스로 미워하리라"(20:43), 2) "그들이 낙 담하여"(21:15), 3)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21:30), 4) "수치를 당하리니"(22:16), 5)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 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23:22). 하나님께서는 심판 을 통해서 단순한 공포감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을 얻길 바라셨지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자각"입니다. 죄 를 직접 깨닫지 못하고, 죄로 인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음을 깨닫 지 못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홀리바'란,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예루살렘 성전 -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로 했던 언약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 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하시는 장막-약속의 장소를 약탈 당하게 허락하시고, 그곳의 사람들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을 밝히십니다.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 라"(46절). 하나님의 뜻은 "죄로 부터의 구원"입니다. 모든 이들이 정신이 깨어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길 바라십니다.

Through Ezekiel. God showed the method of judament. Most of the tools of judgment were using Gentiles. Although the appearance of judgment revealed was diverse, there are commonalities: (1) "they will hate themselves" (20:43), (2) "they will become discouraged" (21:15), (3) "in the land of your birth, I will pass judgment upon you." (21:30), (4) "you will be put to shame" (22:16), (5) "I will stir up your lovers against you, those you turned away from in disgust, and (6) I will bring them against you from every side" (23:22). God did not intend to merely inflict fear through judgment. He wanted sinners to gain a deep understanding. So, the method God chose is "awareness", because He knew that man would not realize his own sin by himself. If you don't experience the hardship caused by your sin, you won't recognize where you sinned, and you won't comprehend that there was something you loved more than God. 'Ohlibah' means "my tent is in her." God emphasizes that the temple in Jerusalem - the place where God intended to place His name - was among the people of Israel. God reveals His will by allowing the dwelling tent (the place of the covenant) to be plundered, and by causing the people there to be slain, "my judgment will be a warning to all women not to follow your wicked example." (23:48) God's intention is "saving them from sin." He wants everyone to wake up and be saved from sin.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2

October 금 Fri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리라

You will be a sign to them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24장



새342장(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가마를 선택하고 그 속에 고기를 넣고는 뼈 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하신다. 이는 가마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 심 판이 임박했음을 알리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녹이 슨 가마이기에 불 을 견딜 수도 없고. 그 안의 고기도 더럽게 하였으므로 가마는 패기 되어야 함을 알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신다. 동시에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며 이를 심판의 증거로 삼으신다.

에스겔 24:13-24

- 13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 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 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 14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 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 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15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16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 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
- 지라 18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 19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 므로
-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 하여 이르시되
- 21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의 버려 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 22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 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 23 수거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 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 24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 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Reading insight

God tells Ezekiel to choose the cooking pot, put the pieces of meat in it, and boil it until the bones are soft. This is to inform Israel, symbolized by the pot, that judgment is imminent, and Israel cannot withstand the fire because it is a rusted pot which must be discarded because the meat in it has also been polluted. God causes Ezekiel's wife to die. Ezekiel hides his sorrow and takes this as evidence of judgment.

Ezekiel 24:13-24

- 13 On account of your unclean lewdness, because I would have cleansed you and you were not cleansed from your uncleanness, you shall not be cleansed anymore till I have satisfied my fury upon you.
- 14 I am the LORD. I have spoken; it shall come to pass; I will do it. I will not go back; I will not spare; I will not relent; according to your ways and your deeds you will be judged, declares the Lord GOD."
- 15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 16 "Son of man, behold, I am about to take the delight of your eyes away from you at a stroke; yet you shall not mourn or weep, nor shall your tears run down.
- 17 Sigh, but not aloud; make no mourning for the dead. Bind on your turban, and put your shoes on your feet; do not cover your lips, nor eat the bread of men."
- 18 So I spoke to the people in the morning, and at evening my wife died. And on the next morning I did as I was commanded.
- 19 And the people said to me, "Will you not tell us what these things mean for us, that you are acting thus?"
- 20 Then I said to them,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 21 'Say to the house of Israel,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will profane my sanctuary, the pride of your power, the delight of your eyes, and the yearning of your soul, and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whom you left behind shall fall by the sword.
- 22 And you shall do as I have done; you shall not cover your lips, nor eat the bread of men.
- 23 Your turbans shall be on your heads and your shoes on your feet; you shall not mourn or weep, but you shall rot away in your iniquities and groan to one another.
- 24 Thus shall Ezekiel be to you a sign; according to all that he has done you shall do. When this comes,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가마를 불에 달군 이유는 무엇인 가요? 속 뜻은 무엇인가요? (11절) Why was the pot on fire?

What is the hidden meaning? (24:11)

불에 달군 가마는 어떻게 되었나 요? (13-14절)

What happened to the pot on the fire? (24:13–14)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권혁인(CA)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에스겔의 아내가 죽다 Ezekiel's wife dies

성경은 세상의 이치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풀이합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함으로써, 사랑하는 아내인 예루살렘을 잃은 하나님의 심정을 에스겔로 이해하도록 하셨다는 것, 2)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하셨다 것이지요. 여기서 또 주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감정에 취하며, 기쁨에, 슬픔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동시에,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말과 행동으로 옮기고는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과 다르다는 것이 위의 사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를 다스리며 심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육신을 죽게 하신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어 죄를 멈추게 하신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피하려고 삶에서 다양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살기위해서 죽을 것인가? 죽기 위해서 살 것인가? 에스켈은 이러한 질문의 표징(답)이 되어,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게 됩니다(27절). 에스켈은 입을 열어 무엇을 전했을까요? 여러분은 입을 열어 무엇을 전하고 계신가요?

The Bible contains things that cannot be understood by the principles of the world and by human reason. The death of Ezekiel's wife is one of them. So, commentators interpret this event symbolically. Ezekiel was able to understand God's feelings of losing His beloved wife (Jerusalem) by Ezekiel losing his beloved wife. Another important part here is that God did not allow Ezekiel to reveal his sorrow. Sometimes people get emotional while being caught up in joy, sadness, or fear. We tend to be guided by our emotions by expressing them in words and actions which we later regret. However, it is revealed through the above events that God is different from humans.

God is not overcome by sorrow; He rules over sin and completes judgment. God makes the body die in order to bring life to complete salvation. Christ's life ended on earth to stop sin. However, we see people committing various sins in their lives to avoid physical death. Will you die to live? Will you live to die? Ezekiel answers these questions and opens his mouth in front of people (24:27). What message did Ezekiel convey? What message are you conveying with your m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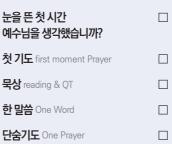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기드 first mamont Pro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3

October 토 Sat

심판을 받는 이방민족들

Gentiles being judged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25장



새221장(통525장) 주 믿는 형제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방의 민족들을 향한 심판 을 선포하신다. 이방의 민족들은(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이스라엘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도구였으 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 이를 보며 기뻐한 것을 죄로 여기 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에스겔 25:1-7

- 1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2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 3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 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 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 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 4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 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 5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 을 양 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을 너희가 알리라
- 6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 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 7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 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 어 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 다 하라

Reading insight

Jehovah God declares judgment against the Gentile nations through Ezekiel. The Gentile nations (Ammon, Moab, Seir, Edom, and the Philistines) were God's instruments used to rule over Israel's sins, but when Israel was judged, God made the Gentiles pay for their sins because they rejoiced over the judgment of Israel.

Ezekiel 25:1-7

- 1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 ² "Son of man, set your face toward the Ammonites and prophesy against them.
- 3 Say to the Ammonites, Hear the word of the Lord GOD: Thus says the Lord GOD, Because you said, 'Aha!' over my sanctuary when it was profaned, and over the land of Israel when it was made desolate, and over the house of Judah when they went into exile,
- 4 therefore behold, I am handing you over to the people of the East for a possession, and they shall set their encampments among you and make their dwellings in your midst. They shall eat your fruit, and they shall drink your milk.
- ⁵ I will make Rabbah a pasture for camels and Ammona fold for flocks.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 6 For thus says the Lord GOD: Because you have clapped your hands and stamped your feet and rejoiced with all the malice within your soul against the land of Israel,
- 7 therefore, behold, I have stretched out my hand against you, and will hand you over as plunder to the nations. And I will cut you off from the peoples and will make you perish out of the countries; I will destroy you.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된 에돔은 이스 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 나요? (12절)

What kind of heart did Edom, who became God's instrument, have toward Israel? (25:12)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15절)

How did the Philistines feel toward Israel? (25:15)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현(CA)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

시작은 같고 끝은 다르다

The beginning is the same, the end is different

암몬 족속은 롯의 아들 벤암미의 후손이며, 모압 족속도 롯의 큰 딸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창 19장). 결국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 관계인데, 과거부터 이때까지 끊임없이 서로를 힘들게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먼 친척을 사용하셨고, 이는 암몬족속과 모압 족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됩니다. 또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가 열렸음을 암시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껏 함께 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암몬과 모압은 그저 좋아만 합니다. "아하 좋다"(3절), "손벽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고 즐거워하였다"(7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10절).

'사이비 (似而非)'란 "겉은 같으나 속은 다르다"라는 의미이지요. 또, '이단 (異端)'이란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작은 비슷했을지 몰라도 그마지막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달랐어도 하나님을 온전히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이들은 그 마지막이 같아졌습니다. (예, 룻, 라합, 기브온 사람들) 위의 두 부류를 구분 짓는 근본적인 차이는 "경외감 fear of God"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신앙인들을 구분 짓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The Ammonites were descended from Ben-ammi, the son of Lot, and the Moabites were also descended from Lot's eldest daughter (Gen. 19). They are distantly related to Israel, and from the past until this time, they constantly have confronted each other. God used distant relatives of the Israelites to rule over the sins of Israel, and this gave the Ammonites and Moabites an opportunity to learn anew "what kind of God He is." It also suggests that the same opportunity has been opened to other Gentiles.

However, Ammon and Moab are just happy witnessing God destroying the nation of Israel: "Aha good" (25:3), "you have clapped your hands and stamped your feet, rejoicing with all the malice of your heart against the land of Israel." (25:6) But they also disappeared from people's memory (25:10).

"Pseudo" means "the same on the outside but different on the inside." Also, "heretical" means "the closure is different." The beginning might have been similar, but the end was different. However, even though the beginning was different, those who came before God in living faith had the same end (e.g., Ruth, Rahab, Gibeonites). The fundamental difference that distinguishes these two groups is the "fear of God." This is the standard that distinguishes believers toda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 기드 first mamont D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4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실상과 허상

정창호 장로(샌디에고 한인연합 감리교회)

십자가, 그것은 결코 장식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서 자신의 삶을 장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황금 목걸이로 만들어서 장식하고 귀걸이로 만들어서도 장식하고있습니다. 어쩌다 십자가가 장신구로 전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다니려는 사람 없는데, 편리한 데로 다듬어 목에 걸어서는 스스로를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소리를 들으려 하기 보다, 귀에 달아 쟁쟁거리며 혼미한 십자가의 소리에 오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인지 십자가가 우상으로 되어버린 신앙, 그것은 곧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실속은 어디다 묻어두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의 목청을 높이고 있는 세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신앙이무시당하고, 목에 걸려진 십자가의 크기로써 신앙이 척도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논리가 여기서도 아이러니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목에 걸려진 그 십자가의 크기로써 스스로의 신앙을 과시해 보려 함을 진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새를



갖추려는 나의 신앙은 정녕 어디서부터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신 앙은 결코 과장되어질 수 없는 것인데, 스스로를 위장하고 과장하려 함은 실로 무엇 때문입니까? 종교적인 환상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입니까?

마음속 깊숙이에 간직해야 할 십자가, 영혼 깊은 곳에서 들어야 할 그 십자가의 소리가 경건의 모양새를 갖추려는 몸짓으로 전락됨을 볼 때, 실로 나 자신의 실상은 무엇이며 허상은 또한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해 전부를 다 드려도 못다 갚을 수밖에 없는 나의 작은 수고를, 목에 매어보려 하고 귀에 달아보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실로 망각하려 함이옵니다.

주님! 나의 목에 걸어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면 언제나 회개해야 할 마음뿐인데, 사람들 앞에선 목에 걸어 나를 자랑하고, 귀에 달아 쟁쟁거리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내세우려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자신을 부인하므로 주님의 십자가 지게 (눅 9:23)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려하는 열망(빌 3:9)을 허락 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게하시고 십자가의 그 진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을날에, 그 십자가를 느낄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시금 십자가의 그 사랑에 눈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에 스스로가 녹아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실상임을 알게 하십시오.

아-멘

October 월 Mon

심판 받는 두로

Tyre being judged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26장



새90장(통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는데(26-28장), 이는 두로가 이스라 엘의 멸망이 자신들에게 상업적인 이익이 될 것을 기대한 이유 때 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이웃 나라로 하여금 놀라게 하신다.

에스겔 26:1-6, 15-18

- 1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2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 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 3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 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 4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 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 맨 바위가 되 게 하며
- 5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 략거리가 될 것이요
- 6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 15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 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 을 당할 때에라
- 16그 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 을 벗으며 수 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 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 17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 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 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 18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임이여 바 다 가운데의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 리라

Reading insight

God judges Tyre (chapters 26–28) because Tyre expects the destruction of Israel to be of commercial benefit to them. God surprises the neighboring nations with the destruction of Tyre.

Ezekiel 26:1-6, 15-18

- In the eleventh year,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 ² "Son of man, because Tyre said concerning Jerusalem, 'Aha, the gate of the peoples is broken; it has swung open to me. I shall be replenished, now that she is laid waste,'
- ³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am against you, O Tyre, and will bring up many nations against you, as the sea brings up its waves.
- 4 They shall destroy the walls of Tyre and break down her towers, and I will scrape her soil from her and make her a bare rock.
- 5 She shall be in the midst of the sea a place for the spreading of nets, for I have spoken, declares the Lord GOD. And she shall become plunder for the nations,
- 6 and her daughters on the mainland shall be killed by the sword. Then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 15 "Thus says the Lord GOD to Tyre: Will not the coastlands shake at the sound of your fall, when the wounded groan, when slaughter is made in your midst?
- 16 Then all the princes of the sea will step down from their thrones and remove their robes and strip off their embroidered garments. They will clothe themselves with trembling; they will sit on the ground and tremble every moment and be appalled at you.
- 17 And they will raise a lamentation over you and say to you, "'How you have perished, you who were inhabited from the seas, O city renowned, who was mighty on the sea; she and her inhabitants imposed their terror on all her inhabitants!
- 18 Now the coastlands tremble on the day of your fall, and the coastlands that are on the sea are dismayed at your pass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로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 하셨나요? (4, 14절) How was Tyre devastated after God's judgment? (26:4, 14)

두로의 멸망을 보던 이웃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16-18절)

How do the neighbors who saw Tyre's destruction react? (26:16–18)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어바인드림교회, 원홍연(CA) 언약교회, 이상호(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어리석은 생각의 마지막

Consequences of stupid thinking

두로는 지중해에 위치한 유명한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두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지요. 다윗이 성을 지을 때(삼하 5장),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왕상, 7장), 두로 왕 히람(후람)이 백향목과 목수 등을 지원해 줄 정도로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11년이 되던 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겔 26:2)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간접적으로 알았던 두로는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놀랐어야 했는데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자신들의 상권이 더욱 강해질 것을 기대하며 좋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더욱이 이웃 나라의 환난을 보고 기뻐하는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두로가 솔로몬의 잠언을 기억했더라면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요. 잠언 27:12,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Tyre was one of the famous cities located on the Mediterranean Sea. In the days of David and Solomon, Israel and Tyre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hen David built the city (2 Sam. 5) and Solomon built the temple (1 Kgs. 5, 7), the relationship was so good that Hiram (Huram), king of Tyre, provided support with cedar wood and carpenters. However, as time passed and 11 years after the fall of Jerusalem, Tyre rejoiced ov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said, "Aha! The gate to the nations is broken, and it's doors have swung open to me: Now that she lies in ruins I will prosper." (Ezek. 26:2) Tyre, who watched directly/indirectly God's guidance through David's kingship and Solomon's wisdom, should have been warned by God's wrath when they saw the fall of the city of Jerusalem, but instead they were happy. They liked and expected that their commercial advantage would become stronger with the fall of Jerusalem.

Therefore, God judges Tyre, who does not repent even after seeing God's judgment, and rejoices in seeing the tribulation of a neighboring country. If Tyre had remembered Solomon's proverb, this judgment might have been avoided. Proverbs 27:12 says, "The prudent see danger and take refuge, but the simple keep going and pay the penalty." It is wise to believe in God's sovereignty and reflect on yourself even in small th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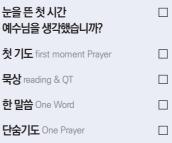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기도 first moment Pro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6

October 화 Tue

"슬픈 노래를 지으라"(2절)

"Take up a lament" (27: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27장



새311장(통185장) 내 너를 위하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 신다. 1-11절에선 두로를 배로 비유해서 아름다움과 위엄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12-25절에선 많은 나라들과 왕성한 무역하는 모습을 노래한다. 26-26절에선, 배로 비유된 두로가 난파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노래한다.

에스겔 27:26-36

- 26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여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 27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 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임이여
- 28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 29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 30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 에 덮어쓰며 재 가운데에 뒹굴며
- 31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베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 32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 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 33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음이여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 34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음이여
- 35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 36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여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Reading insight

God tells Ezekiel to compose a sad song for Tyre. In verses 1–11 Ezekiel compares Tyre to a ship and sings of her beauty and majesty. In verses 12–25 he sings of Tire's prosperous trade with many countries. In verses 26–26, he sings about Tyre, which is compared to a ship that is wrecked and sinking.

Ezekiel 27:26-36

- **26** "Your rowers have brought you out into the high seas. The east wind has wrecked you in the heart of the seas.
- 27 Your riches, your wares, your merchandise, your mariners and your pilots, your caulkers, your dealers in merchandise, and all your men of war who are in you, with all your crew that is in your midst, sink into the heart of the seas on the day of your fall.
- 28 At the sound of the cry of your pilots the countryside shakes.
- 29 and down from their ships come all who handle the oar. The mariners and all the pilots of the sea stand on the land
- 30 and shout aloud over you and cry out bitterly. They cast dust on their heads and wallow in ashes;
- 31 they make themselves bald for you and put sackcloth on their waist, and they weep over you in bitterness of soul, with bitter mourning.
- 32 In their wailing they raise a lamentation for you and lament over you: 'Who is like Tyre, like one destroyed in the midst of the sea?
- 33 When your wares came from the seas, you satisfied many peoples; with your abundant wealth and merchandise you enriched the kings of the earth.
- 34 Now you are wrecked by the seas, in the depths of the waters; your merchandise and all your crew in your midst have sunk with you.
- 35 All the inhabitants of the coastlands are appalled at you, and the hair of their kings bristles with horror; their faces are convulsed.
- **36** The merchants among the peoples hiss at you; you have come to a dreadful end and shall be no more forev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 '두 로'에 대한 자기 고백적인 묘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3-4절) Meditate on what the description of "Tyre", a nation judged by God, means to you. (27:3-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

중매자 Mediator

지중해에 위치한 두로는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지중해 지역의 섬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물건들과 타지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활발하게 거래되었지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지어진 노래의 앞부분을 보면, 마치 모든 것들이 두로의 것인 듯 '모두 너와 거래하였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두로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처럼 우쭐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두로는 중매자의 역할이 주어졌지만, 그 역할을 잊고는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로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이로써,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36절)이 되는,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이 되게 하십니다.

두로가 중매자의 역할을 겸손히 했다면, 오랜 도록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을 테지만 결국 두로는 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중매자가 됩니다. 하지만, 두로처럼 스스로를 높일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Situated on the Mediterranean Sea, Tyre was an important city connecting land and sea. Therefore, goods produced in the island countries of the Mediterranean region and goods produced in other countries were actively traded. However, if you look at the first part of the song written by Ezekiel, it is written as if everything belonged to Tyre, "Everyone made a deal with you." This is a paradoxical expression, showing that Tyre was proud of everything as if it were "her own." In fact, Tyre was given the role of a mediator, but God judged Tyre's "pride" because she forgot that role and exalted herself. Therefore, Tyre becomes "a place no more inhabited" (27:36) and a place no one will find.

Had Tyre humbly acted as a mediator, it would have been a trading place for a long time, but instead Tyre disappeared. People of faith become mediators who testify of Jesus to their neighbors in the world. However, when we exalt ourselves like Tyre, Jesus (the Word of God) is not witnessed. As I meditate on the roles given to believers, I hope that only the Word of God will be witnessed.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열린교회, 김규현(CA) 영화연합감리교회, 강현철(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40		a	
		1	
	u	ш	

	_	
1	9	N
u	_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	되	first	mom	ent	Prayer
----	---	-------	-----	-----	--------

한 말씀 ()	ne Word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7

October 수 Wed

두로 왕의 교만

Pride of the King of Tyr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28장



새179장(통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을 지적하신다. 또 한, 두로의 이웃 국가인 시돈도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신다. 마지 막엔.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들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신다.

에스겔 28:1-9

- 1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2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 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 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 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 3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 4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 간에 저축하였으며
- 5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 6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 7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 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 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 8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 9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Reading insight

God points out the specific cause for Tyre's judgment. He also reveals that Tyre's neighbor, Sidon, will also be judged. God announces that in the last days He will bring restoration to the remnant of Israel.

Ezekiel 28:1-9

-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 2 "Son of man, say to the prince of Tyre, Thus says the Lord GOD: "Because your heart is proud, and you have said, 'I am a god, I sit in the seat of the gods, in the heart of the seas,' yet you are but a man, and no god, though you make your heart like the heart of a god--
- 3 you are indeed wiser than Daniel; no secret is hidden from you;
- 4 by your wisdom and your understanding you have made wealth for yourself, and have gathered gold and silver into your treasuries;
- 5 by your great wisdom in your trade you have increased your wealth, and your heart has become proud in your wealth--
- 6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Because you make your heart like the heart of a god,
- 7 therefore, behold, I will bring foreigners upon you, the most ruthless of the nations; and they shall draw their swords against the beauty of your wisdom and defile your splendor.
- 8 They shall thrust you down into the pit, and you shall die the death of the slain in the heart of the seas.
- 9 Will you still say, 'I am a god,' in the presence of those who kill you, though you are but a man, and no god, in the hands of those who slay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두로는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었나요? (16절) Why did Tyre become proud before God? (28:16)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24절) 이 심판은 두로와 시돈과 어떻게 다른가요?

How do you describe God's judgment on Israel? (28:24) How is this judgment different from Tyre and Sidon?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예수사랑교회, 이강원(CA)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섭(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mark>후회</mark> Regret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난 뒤에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체험합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을 여의고 난 뒤에 부모님의 잔소리도 사랑과 관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이별을 경험한 뒤에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이러한 후회의 시작은 언제나 "자아 중심적"인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건강도, 사랑도, 가족도 언제나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길 때, 진정한 의미는 간과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 것/맡겨진 것'으로 깨달아지는 상황을 통해서, 후회를-주어진 것이 거두어졌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두로의 왕은 상업으로 번성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것을 경험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신-사람들 위에 있는 존재'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의 교만을 지적하시며 그가 '사람-유한한 존재'임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칼에 의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병에 걸려 건강을 잃고, 멸시를 받으며 스스로가 '여전히 사람임'을 경험하며, 스스로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삶의 모든 것 (호흡까지도)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허락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연약함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에 비로소 사람은 '겸손'이라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People desperately experience the preciousness of health after losing their health. After losing their parents, people realize that their parents' nagging was about love and care. Some couples realize the value of love after experiencing a breakup. The beginning of these regrets always springs from the "egocentric" mind. When health, love, and family are always taken for granted as "things that I can reach out and grab," their true values are overlooked. However, through a situation in which these things are regarded as "given or entrusted," one becomes aware of regret—that what has been given once has now been taken away.

The King of Tyre looked to a country thriving in commerce, seeing everything run under his own power, and believed that everything was in "his hands." He became convinced he was a "god-being above the people." God points out King Tyre's pride and makes him experience that he is just a "man-finite being." He was invaded by a foreign country, faced the horror of death by the sword, became ill, was despised, and at last acknowledged himself as "still a man" allowing himself to face his own weakness. Only when we acknowledge and confess that everything in life (even our breath) is "entrusted" by God, and when we are satisfied with our weaknesses and give thanks, can we sit in the position of "humility". God wants this confession of humility from us toda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8

October 목 Thu

시판 받을 애굽

Egypt to be judged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29장



새447장(통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다(29-32장). 애굽은 앞선 두로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나일강의 주인'이라 여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애굽도 심판을 받는다.

에스겔 29:1-7, 13-16

- 1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2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 3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 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 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 들었다 하는도다
- 4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 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 5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 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 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 6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 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 7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 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 13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십 년 끝 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 14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 15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 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 16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 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 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Reading insigh

God speaks of judgment on Egypt (chapters 29–32). Egypt, like Tyre, considers itself the "lord of the Nile." For not acknowledging God's sovereignty, Egypt is also judged.

Ezekiel 29:1-7, 13-16

- In the tenth year, in the tenth month, on the twelfth day of the month,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 ² "Son of man, set your face against Pharaoh king of Egypt, and prophesy against him and against all Egypt;
- 3 speak, and say,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am against you, Pharaoh king of Egypt, the great dragon that lies in the midst of his streams, that says, 'My Nile is my own; I made it for myself.'
- 4 I will put hooks in your jaws, and make the fish of your streams stick to your scales; and I will draw you up out of the midst of your streams, with all the fish of your streams that stick to your scales.
- ⁵ And I will cast you out into the wilderness, you and all the fish of your streams; you shall fall on the open field, and not be brought together or gathered. To the beasts of the earth and to the birds of the heavens I give you as food.
- 6 Then all the inhabitants of Egypt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Because you have been a staff of reed to the house of Israel.
- ⁷ when they grasped you with the hand, you broke and tore all their shoulders; and when they leaned on you, you broke and made all their loins to shake.
- 13 "For thus says the Lord GOD: At the end of forty years I will gather the Egyptians from the peoples among whom they were scattered,
- 14 and I will restore the fortunes of Egypt and bring them back to the land of Pathros, the land of their origin, and there they shall be a lowly kingdom.
- 15 It shall be the most lowly of the kingdoms, and never again exalt itself above the nations. And I will make them so small that they will never again rule over the nations.
- 16 And it shall never again be the reliance of the house of Israel, recalling their iniquity, when they turn to them for aid. Then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은 몇 년 이나 흩어져 살아가나요? (13절) How many years will the Egyptians be scattered by God's judgment? (29:13)

애굽을 어떤 나라로 만드시겠다 하셨으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14-16절)

What kind of country did God say he would make Egypt, and why? (29:14–1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헌(CA) 우드랜드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황승일(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심판 앞에서 믿음 확인

Confirmation of Faith in the Judgment

애굽은 스스로를 나일강의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 굽을 강의 큰 악어라 하셨지요. 이웃에게 두려움을 주고, 힘으로 빼앗는 강 가의 상위 포식자였습니다. 그런데, 강가의 악어가 자신이 '강의 주인'이라 여겼다는 겁니다. 나일강이 자신의 것이고, 스스로가 강을 만들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악어를 하나님께서는 강 밖 들에 던져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신다 하십니다. 물 밖으로 나온 악어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나일강이 없었다면 자신도 살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빼앗으시면서 스스로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방법과 유사하지요. 하지만 다른 것은 심판으로 환난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방민족들은 자신들의 연약함만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말씀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분명한 차이입니다. 환난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적 반응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함을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언약)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있고 없음의 큰 기준이 됩니다.

Egypt regarded herself as the owner of the Nile River. However, God called Egypt a great river crocodile. She was the top predator along the river, feared by her neighbors, and robbed them by force. Thus, the crocodile by the river believed that she was the "master of the river." God throws the crocodile into the field out of the river and feeds her to beasts of the field and birds of the air. When the crocodile comes out of the water, she becomes completely powerless and then realizes her situation. Without the Nile River, sh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live. The way God judges Tyre and Egypt is almost identical. God takes away what they have in their hands and lets them know that they don't own it.

This method is similar to the pattern of judgment against Israel. In the process of experiencing tribulation as a result of judgment, Gentile nations only realize their own weakness, but the Israelites realize their mistakes and recall the word of God's covenant at the same time. This is the clear difference. Feeling the weakness of the body in tribulation is an instinctive response of all living beings, but people of faith must remember God's Word (covenant) through weakness. This is the great criterion of having or not having faith.

Journaling with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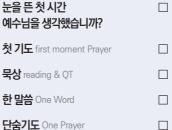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_	

	_	
4	<u></u>	
u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	끼 ?
-1 -1 -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October 금 Fri

바로의 팔을 꺾으리라

I have broken the arm of Pharaoh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30-31장



새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고대 근동에서의 애굽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게 섬김을 받는 나라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포함하여 애굽을 의지하던 나라들까지도 무너뜨릴 것을 예고 하신다.

에스겔 31:3-14

- 3볼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 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이었느니라
- 4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 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둑의 물이 들의 모든 나 무에까지 미치매
- 5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 6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 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 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 7그 뿌리가 큰 물 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 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 8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 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 9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 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 1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 음이 교만하였은즉
- 11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 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 12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 가 그 땅 모든 물 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 13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 14이는 물 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 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 을 다 죽음에 넘겨 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 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Reading insigh

Egypt in the ancient Near East was a nation that was served not only by Israel but also by many other nations. God foretells the destruction of the nations that depended on Egypt, including Egypt itself.

Ezekiel 31:3-14

- ³ Behold, Assyria was a cedar in Lebanon, with beautiful branches and forest shade, and of towering height, its top among the clouds.
- 4 The waters nourished it; the deep made it grow tall, making its rivers flow around the place of its planting, sending forth its streams to all the trees of the field.
- ⁵ So it towered high above all the trees of the field; its boughs grew large and its branches long from abundant water in its shoots.
- ⁶ All the birds of the heavens made their nests in its boughs; under its branches all the beasts of the field gave birth to their young, and under its shadow lived all great nations.
- 7 It was beautiful in its greatness, in the length of its branches; for its roots went down to abundant waters.
- 8 The cedars in the garden of God could not rival it, nor the fir trees equal its boughs; neither were the plane trees like its branches; no tree in the garden of God was its equal in beauty.
- **9** I made it beautiful in the mass of its branches, and all the trees of Eden envied it, that were in the garden of God.
- 10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Because it towered high and set its top among the clouds, and its heart was proud of its height,
- 11 I will give it into the hand of a mighty one of the nations. He shall surely deal with it as its wickedness deserves. I have cast it out.
- 12 Foreigners, the most ruthless of nations, have cut it down and left it. On the mountains and in all the valleys its branches have fallen, and its boughs have been broken in all the ravines of the land, and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have gone away from its shadow and left it.
- 13 On its fallen trunk dwell all the birds of the heavens, and on its branches are all the beasts of the field.
- 14 All this is in order that no trees by the waters may grow to towering height or set their tops among the clouds, and that no trees that drink water may reach up to them in height. For they are all given over to death, to the world below, among the children of man, with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애굽의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30:22) How does God express the judgment of Egypt? (30:22)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비유된 애 굽은 어떻게 자라났다고 묘사되 었나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31:4-5)

How did Egypt, likened to the cedar of Lebanon, grow up? What does that mean? (31:4–5)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월셔연합감리교회, 구진모(CA) 유바 사랑의 교회, 강혜성(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교만도 자랍니다 Arrogance also grows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며 주변의 국가들의 마음에 근심을 얻게 하십 니다(30:4, 9, 16). 기록된 말씀을 보니, 적어도 10여 개 이상의 나라들이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 바논의 백향목" 같은 애굽의 큰 위엄을 꺾으시어서, 그 꺾인 나무에서 새와 짐승들로 하여금 증거를 삼아 다른 나무들도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겠 다고 하십니다(14절), 애굽에 대한 심판은 마태복음 5:45를 기억나게 합니 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 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성품, '온전함'이 드러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겸손이 자라고, 누군가에게는 교만이 자랍니다. 때로 교만과 겸손이 번갈아 자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 권을 믿는 이들에겐 겸손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지요. 겸손의 믿음은 자라서 공중의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되지만(막 4:32), 교만의 믿음은 자라서 꺾임을 당하는 나무가 되어 모든 짐승들에게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이 자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무 엇이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God judges Egypt and causes the hearts of the surrounding nations to grieve (30:4, 9, 16). Looking at the record, at least 10 or more countries would be destroyed together with Egypt. God will cut down the great majesty of Egypt like "the cedar of Lebanon, which is tall and whose top reaches to the clouds," so that birds and beasts will use the broken tree as a witness and so that other trees will not exalt themselves (31:14). Judgment on Egypt reminds us of Matthew 5:45, "... God makes his sun shine on the wicked and on the good, and sends rain on the righteous and the unrighteous." This is a verse that reveals God's disposition, His "tolerance".

God makes the sun shine on all living things and sends rain to make them grow. In this same grace of God, humility grows in some and pride grows in others. Sometimes pride and humility grow alternately, but humility takes root more deeply in those who believe in God's sovereignty. The faith of humility grows and becomes like a tree that provides shade to the birds of the air (Mark 4:32), but pride grows into a tree that will be broken and become a testimony of judgment to all beasts. Don't forget that pride can grow. We should examine what is growing within us.

Journaling with Jesus

0	-71		
$\cup = \cup$		- Inan	ks Note
		HIGH	

	-	
а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October 토 Sat

슬픈 노래를 부르라

Chant the lament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32장



새204장(통379장) 주의 말씀을 듣고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하신다. 나일강의 포식자였던 악어를(애굽을) 강에서 끌어내어 다른 짐승 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신다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 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은 스올(죽은자의 세계/ 영원한 죽 음의 세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다.

에스겔 32:17-24

- 17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18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 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 19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 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 20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임이 여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 를 끌지어다
- 21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 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함이여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 웠다 하리로다
- 22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음이여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 두다
- 23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 24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 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가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 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Reading insight

God tells Ezekiel to compose and sing a sad song for Pharaoh of Egypt. God's judgment is proclaimed through the parable of bringing the crocodile (Egypt), the predator of the Nile, out of the river to become food for other animals. God says by His judgment Egypt will fall into Sheol (world of the dead/world of eternal death).

Ezekiel 32:17-24

- 17 In the twelfth year, in the twelfth month, on the fifteenth day of the month,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 **18** "Son of man, wail over the multitude of Egypt, and send them down, her and the daughters of majestic nations, to the world below, to those who have gone down to the pit:
- 19 'Whom do you surpass in beauty? Go down and be laid to rest with the uncircumcised.'
- 20 They shall fall amid those who are slain by the sword. Egypt is delivered to the sword; drag her away, and all her multitudes.
- 21 The mighty chiefs shall speak of them, with their helpers, out of the midst of Sheol: 'They have come down, they lie still, the uncircumcised, slain by the sword.'
- 22 "Assyria is there, and all her company, its graves all around it, all of them slain, fallen by the sword,
- 23 whose graves are set in the uttermost parts of the pit; and her company is all around her grave, all of them slain, fallen by the sword, who spread terror in the land of the living.
- 24 "Elam is there, and all her multitude around her grave; all of them slain, fallen by the sword, who went down uncircumcised into the world below, who spread their terror in the land of the living; and they bear their shame with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애굽이 멸망 당하기 전에 이웃 나라들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23절)

What was Egypt like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before it was destroyed? (32:23)

애굽의 멸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32절) Meditate on God's determination in the destruction of Egypt. (32:32)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은강연합감리교회, 홍종걸(CA) 은혜연합감리교회, 한진호(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They lie among the uncircumcised

애굽을 향한 슬픈 노래엔 반복적으로 애굽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 '곁에' 누웠음을 노래합니다.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상징한다면, 할례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얻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더욱이, 애굽이 이러한 이들 곁에 누웠다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애굽도 하나님의 언약을 얻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이런 표현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애굽이 스올에 내려 갔다' 또는 '애굽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할례받지 못하고 죽은 이들 곁에 누웠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까요? 사실, 애굽은 이방 민족이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출애굽 사건으로 직접 체험했으며, 이방인들에게 도 할례가 허락되었고(출 12장) 이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에 애굽은 할 례를 받을 기회와 가능성이 많은 나라였음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할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 "할 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웠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라보시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될지 살피라 하십니다.

A lament concerning Egypt repeatedly tells of Egypt lying "beside" those who had been killed without being circumcised. If circumcision symbolizes the covenant between God and Abraham, death without circumcision means that they did not receive God's covenant. Moreover, the expression that Egypt lay next to these people means that Egypt also did not obtain God's covenant. However, I wonder why Ezekiel keeps using this expression.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say, "Egypt went down to Sheol" or "Egypt died uncircumcised."

In fact, Egyptians are Gentile people, but historically Egypt has a deep connection with Israel. Egypt directly witnessed the power of Jehovah God through the Exodus event, and Gentiles were also allowed to be circumcised (Exod. 12). Therefore, we can see that Egypt was a country with many opportunities and possibilities for circumcision. The expression of regret that "they could believe in God's covenant and choose to be circumcised, but did not" is probably another way of expression of "they laid down with the uncircumcised." This is also God's heart toward Egypt.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



31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서겨보므 Carina ar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진정한 비젼

이준구목사(화도시온교회)

구약 에스겔 37장 1-14절에 보면 성령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장면을 보고 놀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겔 37:11)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절망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 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뼈들은 바짝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된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비전에 대해 말할 때에 많은 분들이 자기 판단에 따라 비전이 있다 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전은 나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나는 비전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아예 스스로 판단하려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합니다.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십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I 에스겔 3:16-21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네게 끝이 이르렀다 I 에스겔 7:14-27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I 에스겔 14:1-20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I 에스겔 20:4-26

●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남은 자들이여, 심판을 기억하라! I 에스겔 29:8-16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330장(통37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1 여는 질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요? 또, 어떤 부분에서 힘듬을 느끼시는지 나누어 주세요.

2 본문 이해

에스겔 선지자 보다 2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의 멸망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21장, '바벨론과 두마'를 향한 경고 속에서 파수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11–12절, 새번역] 사람들은 밤(심판)이 지나가며 아침(회복)이 오길 기다리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으로써 다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세상에서의 파수꾼은 24/7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방 경계를 섭니다. 파수꾼은 멀리 내다보며 외부의 상황을 살피고, 진영 내의 아군을 깨워 전투 준비 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나라의 멸망을 예견하거나 예비할 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한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 파수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한 나라의 멸망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17절). 이구절에서 사용된 '깨우치다'라는 히브리어는 [자하르 zahar]이며 그 의미는 "(번쩍이는) 경고하다, 가르치다, 빛나다"입니다.

'깨우치다'는 것은 알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심판의 때 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님 심판의 의미 자체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춰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예수님=빛)을 듣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비춰 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명령 속에 한 가지를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바로 "적당히 하지 말라"라는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충-적당히 경고하여서 악인과 악행을하게 된 의인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에스겔에게서) 찾을 것"을 알리셨습니다(18, 20절).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는 역할이 주어졌음이 오늘의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이웃의 삶을 비추어 깨우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말씀 속으로

파수꾼의 역할과 파수꾼이 받게 될 보상은 무엇인가요? (19, 21절)

4 삼속으로

- 1. 지금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되돌리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 2. '성공 또는 실패'의 경우라 고백할 수 있는 사건과 그 이유를 나누어 보세요.

5 암송 구절 - 에스겔 3: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6 자녀와 나눔

하나님께서 '나쁜 행동'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게 끝이 이르렀다



새 337장(통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새 342장(통 395장) 너 시험을 당해

1 여는 질문

최근에 경험한 일 가운데, "개인적 경험과 지혜 및 이웃의 조언"을 통해서도 해결책을 얻지 못했던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때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나누어 주세요.

2 본문 이해

삶 속에서 경험되는 환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 복잡한 문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했기에, 죄를 찾아 고백 하고 사함을 입으면 위의 문제들은 해결함을 받을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생명을 잃는 심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뒤에 영원한 두 나라, 즉 생명의 부활(천국)과 심판의 부활(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기록된 – 하나님께 서무엇을 싫어하시는 지가 잘 드러난 –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알리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이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3~4절). 화를 내시며 심판을 하시는데, 정확히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화를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에 따라서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더욱이 자비와 긍휼함은 거두어들이시겠다 하셨습니다.

죄에는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고 더 불쾌해하시는 것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칼, 전염병,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세 가지 죄는 1) 하나님께서 주신 진귀한 것으로 보기에 좋은 우상을 만든 죄(20절), 2) 하나님의 것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죄(21절), 3)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죄(22절) 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해서 생겨난 죄였으며, 이를 긍휼함을 배제하며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위의 말씀으로 우리도 차분히 우리의 상황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 보일 정도의 환난일지라도, 생명이 잃는 상황일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들여지지 않았음을 믿으시며, 참회함으로 환난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심판 뒤엔 남겨진 이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셔야 합니다.

3 말씀 속으로

교만한 자들 -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무엇인가요? 4가지 (24-27절).

4 삶속으로

올 한해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본문 이해를 참고하시며, 3가지 심판의 방법과 3가지 죄를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5 암송 구절 - 에스겔 7:25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6 자녀와 나눔

요즘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나요?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새351(통 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 여는 질문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을 해보셨다면 그 때의 심정(슬픔/안타까움 등)을 나누어 주세요. (또는,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었을 때와 이웃의 경우와 어떻게 달랐는지 나누어 주세요.)

2 본문 이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한 1차 포로기와 2차 포로기를 맞이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며 두렵고 절망의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선조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품었겠지요. 에스겔 선지자 앞에 찾아온 두어 장로들도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셨습니다: "그 우상의수표대로 보응하리니"(4절). "각각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10절)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지 않고 심지어 지루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신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심판하셨는데··· 또!". '심판'이란 주제는 무겁지만 내용은 익숙하지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자'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들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다면, '노아, 다니엘, 욥'의 이야기를 꺼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들이 모두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공감을 받을 만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

와 그의 가족', 이유를 모른 채로 환난을 맞이하여 가족과 모든 것을 잃은 '욥', 그리고 에스겔과 동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되어 끌려온 '다니엘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언급하시며 세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20절).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일대일' 관계입니다. 믿음도, 회개도, 심판도 '일대일'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올랐지만, 노아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의 믿음도 '일대일'로 살핌을 받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욥은 매번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욥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만 받으셨음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속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지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아픔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자녀들에 게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원하신다'고 알려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에서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어 백성들의 악행을 끊도록 깨우쳐야 하 듯, 우리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파수꾼의역할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육신으로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죄를 짊어져 줄 수도 없으며, 대신 믿음을 얻어줄 수도 없음을 알려주며,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서게 해야할 것입니다.

3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1절)

4 삼속으로

에스겔14장 14절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칙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5 암송 구절 - 에스겔 14:14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⑥ 자녀와 나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보세요.

4₇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새430장(통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새442장(통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1 여는 질문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오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 왜 지난 일들이 떠오르셨나요? 그 때의 심정은 어떠셨는지 나누어 주세요.

2 본문 이해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에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포로기를 이겨낼 방법,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어 낼 방법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심판을 견디어 낼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4절)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을 택하고 그들에게 맹세를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5-6절). 동시에, 그땅에서 맞이하게 될 우상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하나님(7절).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8절). 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고 이들을 다시금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8-9절).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셨고, 세상에서 거룩함을(구별됨을) 얻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셨는데(11-12절),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 들(13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되짚으시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아 현재를 결정하게 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온 장로들은 '도움' 만을 얻으려고 에스겔에게 나아온 것 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움'만을 기억하는 이들

에게 '하나님을 현재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며, 동시에 자신이 살아온 방식도 알립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수24: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과거에 도움 받은 기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오늘 전심으로 대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말씀속으로

- 1.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왜 인도해 내셨나요? (9절)
- 2.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1-12절)

4 삶속으로

신앙이 뜨거웠던 적이 있다는 고백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혹 지금의 신앙은 어떤 상태이며, 왜 과거와는 다른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혹,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신지 나누어 주세요)

5 암송 구절 - 에스겔 20: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6 자녀와 나눔

과거의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었나요?

5平

남은 자들이여, 심판을 기억하라!



새488장(통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새491장(통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 여는 질문

매일 저녁, 하루를 마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누어 주세요.

2 본문 이해

심판이란 매우 중요한 도구이자 과정입니다.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심판의 기준이 드러나고, 심판을 통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사람의 근심은 더 커지겠지요. 하지만, 심판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심판을 통해서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며,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두려움 —육신의 연약함 —을 뛰어넘기를 바라신 것 이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을 사람들로 목격하게 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존재임을 세상에 알리시려는 것이 심판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부귀 영화와 권력을 소유한 애굽에서 사람과 짐승이 끊어지고,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되게 하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려던 것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모두 없앨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로 보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또한 사람들로 심판을 기억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경험하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선택을 받아 남은자로써의 역할을 얻은 것이었지요. 하나 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육신의 상처를 남겨서 증거 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 자체가 끝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 리가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도달했다면,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 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내일을 준비하며 남은자 들로써 증거해야 하는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3 말씀 속으로

- 1. 애굽의 땅을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9절)
- 2. 애굽을 심판하신 뒤, 남겨진 사람들로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5-16절)

4 삶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계기)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⑤ 암송 구절 - 에스겔 29:16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6 자녀와 나눔

하고 싶어서 바라고 계획했던 일인데, 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무엇인가요?

week 1

I have made you a watchman for the people of Israel

1 Opening Question

What is my role at home, at work, and at school? Also, please share in which role you feel the weakest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prophet Isaiah, who was active more than 200 years before the prophet Ezekiel, also learned of the destruction of the Gentile nations through the guidance of God. Among them, the story of a watchman appears in Isaiah 21, a warning to "Babylon and Dumah." "Watchman, what is left of the night?" The watchman replies, "Morning is coming, but also the night. If you would ask, then ask; and come back yet again" (3:11–12). People wait for the morning (recovery) to come as the night (judgment) passes, but the prophet Isaiah, as a watchman, says there will be another judgment.

The watchmen of the world stand on guard 24/7 day and night. The watchman looks out into the distance, monitors the situation, and wakes up allies in the camp to prepare them for battle. However, they cannot foresee or prepare for the destruction of a nation because the destruction of a nation depends on the sovereignty of God. The prophet Isaiah, as a true watchman, receives God's will and announces the destruction of a nation.

In today's text, God appointed the prophet Ezekiel as a true watchman for the nation of Israel. He gave the chief command, "Hear the word I speak and give them warning from me" (3:17). The Hebrew word for "enlighten" used in this verse is [zahar], which means "to warn (flashing), to teach, to shine."

"To enlighten" means to inform, and it means not only to inform us of the time of God's

judgment, but also to make us realize the meaning of God's judgment itself. Just as Jesus came as the light in John 3 to illuminate the darkness, so he gave the command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Jesus = light) and to illuminate the people with that Word. Moreover, one thing was made clear in these commands: the instructions to "do not be in moderation." God made it clear that if the wicked and the righteous who did evil do not turn from their sins because you gave them general and moderate warnings, "you will be accountable for their blood" (3:18, 20).

It is precisely recorded in today's text that those who have been called by God as watchmen have been given the role of searching people's souls. We who believe in Jesus who came as the light are God's watchmen at home and at work. We should do our best to enlighten the lives of our neighbors and ourselves with the Word of God.

3 Into the Word

What are the roles of watchmen and what rewards will watchmen receive? (3:19, 21)

4 Into our Life

- 1. How have you been "awakening and restoring" as God's watchman at home, at work, and at school?
- 2. Share your success or failure as a watchman and the reason why.

5 Memory Verse - Ezekiel 3:17

"Son of man, I have made you a watchman for the house of Israel. Whenever you hear a word from my mouth, you shall give them warning from me."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are some of the things that God called "wickedness"?

You have come to an end

1 Opening Question

Please share when you were unable to find a solution through personal experience, wisdom, or advice from your neighbors and how you felt at the tim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tribulation experienced in life and the complex problems in our relationships with people are proof that we are still in God's grace. In 2 Samuel 7:14, it is said that God disciplines us with "the rod of man and the scourge of life" to awaken us from our sins. If we find, confess, and receive forgiveness, the above problems will be solved. It can be said that it is in the grace of receiving it. Also, the judgment of losing one's life on this earth still rests in God's grace. Because, as John 5:29 says, after life and death on this earth, there are two eternal kingdoms: the resurrection of life (Heaven) and the resurrection of judgment (Hell). Therefore, death on this earth is the grace of God, and death is disconnection from the grace of God. Collectively, God's judgment is in itself the event through which God's will is best recorded – and what God hates most.

When God informed Ezekiel of judgment against Israel, he said, "… I will unleash my anger against you. I will judge you according to your conduct and repay you for all your detestable practices. I will not look on you with pity; I will not spare you. I will surely repay you for your conduct and for the detestable practices among you" (7:3–4). He judges with anger, and He says that He will be angry according to the exact degree of the act. According to the degree of God's judgment, He will let you know what the abomination is, and moreover, He will take away mercy.

Sin is not great or small, but it clearly implies that there is something that God hates more and is more displeased with. God's judgment proceeded in three ways: the sword, the plague, and the famine. And the three sins of the people were (1) the sin of making idols with the precious things that God gave them (7:20), (2) the sin of being plundered of God's things by the Gentiles (7:21), and (3) the sin of defiling God's sanctuary (7:22). In other words, it was the sin of using God's things regardless of God's will, and He said that He would judge this by excluding mercy.

With the above words, we too should calmly consider our situation and God's will hidden in it. But at the same time, we must not forget that even if it is a tribulation to the extent that God's mercy is not shown and even if life is lost, we believe that God's grace has not yet been withdrawn, and we will have to endure the tribulation with repentance. This is because God's will is revealed clearly in the process of judgment, and time for recovery will be given to the survivors after judgment. You must endure with faith until the end.

3 Into the Word

The arrogant – what is the judgment upon those who regard "God's things as their own?" (7:24–27)

4 Into our Life

What has been the most difficult thing so far in 2021? Could you please elaborate on why you think this happened? (Refer to the understanding of the text, and think while meditating on the 3 methods of judgment and 3 sins.)

(5) Memory Verse - Ezekiel 7:25

"When anguish comes, they will seek peace, but there shall be none."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are you worried about these days?



They Could Save Only Themselves

1 Opening Question

If you have sympathized with the pain and suffering of your neighbor, please share what you felt (sadness/pity, etc.) at that time. Or, share how different it was when you shared the pain and suffering of your own family.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hat would be the hearts of those who heard the message of "God's judgment" proclaimed through the prophet Ezekiel? The Israelites who were taken in the 1st and 2nd captivity by Babylon must have had a sense of fear and despair when they saw the country being destroyed. As they watched Israel fall, there must have been people who recognized their sins. Someone must have had expectations and hopes for "God's salvation" while remembering the history of their ancestors and God's Word. A couple of elders who came before the prophet Ezekiel were also some of these people. But God said to them: "I will answer them myself in keeping with their great idolatry" (14:4) and "each one will bear their guilt" (14:10).

God's judgment in the book of Ezekiel may be familiar or even boring. Or, you may be thinking: "God judges again… He also judged through Isaiah and Jeremiah… And again!" The subject of "judgment" is heavy, but the content is familiar. So, you can meditate on the Word with the heart of "If we have sinned, we will be judged, repent and be saved." If you are meditating on the book of Ezekiel with these thoughts, you should focus on God's words that brought up the stories of "Noah, Daniel, and Job."

The reason God mentioned "Noah, Daniel, and Job" is because they were all people who deserve respect and honor. "Noah and his family," the only survivors when God judged the world with water; "Job" who lost his family and everything in tribulation without knowing the reason, and "Daniel and friends" who were brought into captivity after being judged by God at the

same time as Ezekiel. God mentions these three times and says the same thing: "They would save only themselves" (14:20).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the people is a "one-to-one" relationship. Faith, repentance, and judgment all take place in a "one-to-one" relationship. Noah's family entered the ark, not because of Noah's faith, but because each child received God's grace based on their own through a "one-to-one" relationship. Job offered sacrifices for his children, but God clearly stated that only Job's faith was accepted through Job's sacrifice. Daniel and his friends were also guided by their faith in "one-to-one" relationships with God. If parents are praying for their children's faith and their children's pain, they must first tell them. You need to let them know that God desires to hear their prayers. Just as Ezekiel became a watchman in Ezekiel 3 and taught people to stop evil deeds, we may only act as watchmen to our families and neighbors. We must tell them that no matter how much we love them, we cannot physically get sick in their stead, we cannot bear their sins in their stead, and we cannot build their faith in their place. They will have to stand before God "one-to-one."

3 Into the Word

Why does God bring judgment? (14:11)

4 Into our Life

Ezekiel 14:14 ("He will save only his own life by his own righteousness") is God's "judgment rule" that rules the world. In the face of these rules, what can God's children do and what can't we do?

(5) Memory Verse - Ezekiel 14:14

"Even if these three men, Noah, Daniel, and Job, were in it, they would deliver but their own lives by their righteousness, declares the Lord GOD."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Read verse 14 together and explain what you understand.



Through the history of the nation of Israel

1 Opening Question

You may have suddenly been reminded of a past experience. When and why did that memory resurface? Please share how you felt at that tim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Several elders from Israel came to Ezekiel and asked the will of Jehovah God. In response to this guestion, God said through Ezekiel, "I will not allow you to inquire of me" (20:3).

To those who needed a way to overcome the captivity and endure God's judgment, God begins with a story of the past. He did not tell them how to endure judgment, but said, "Let them know the abominations of their fathers, and tell them." (v. God chose Jacob's house and swore to them that he would lead them to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20:5–6) At the same time, God commanded them to be on the lookout for the idols they would encounter in the land (20:7). People of Israel listened to God's warning but became idolatrous (20:8). Then God revealed His wrath and brought them back again (20:8–9). God's laws and ordinances were made known, and the Sabbath was given as a sign in order to obtain holiness (separation) from the world (20:11–12). The Israelites ignored God's law and defiled the Sabbaths (20:13).

While traversing history, God asks the elders of Israel to examine themselves to determine the present. Recalling the memories of encountering God in the past, the elders who came to Ezekiel came only to seek God's help. However, God allows those who remember only "help" to decide "how to meet God now." In Joshua 24, Joshua tells the history of Israel to the people at the end of his life and at the same time tells the way he lived,

"Choose today whom you will serve,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Josh. 24:15) He adds: Joshua 24:19, "Joshua said to the people, 'You cannot serve the LORD, because he is a holy God and a jealous God, and he will not forgive your inequities or your sins.'" God asks us "today" through past history. He asks if we are seeking God through the memories of receiving help from God in the past or if we want to live anew with God today. We must answer God's question with our whole heart today.

3 Into the Word

- 1. Why did God lead Israel who was worshiping Egyptian idols? (20:9)
- 2. Why did God give them laws, statutes, and the Sabbath? (20:11-12)

4 Into our Life

Some of you may have confessed that you had a burning faith. If so, what is the status of your faith now and why is it different from the past? (If you are struggling to rekindle your faith, please share what you are struggling with.)

(5) Memory Verse - Ezekiel 20:20

"And keep my Sabbaths holy that they may be a sign between me and you, that you may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did you learn and realize from good and bad things in the past?



Remnants, Remember the Judgment!

1 Opening Question

Please share thoughts you have at the end of each day.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Judgment is a very important tool and process. This is because, through the process of judgment, the standards of judgment are revealed, and through judgment, good things and bad things can be distinguished. By judging Israel, God reveals His standards, and through His judgment, He reveals His dislikes and His likes.

Fear and anxiety will prevail in the face of God's judgment. If we know that God is in control of life and death, people's worries will increase. However, it was not God's intention to make people fear death through judgment. God's intention through judgment is to let people know that life and death are in God's hands, and by walking with God and realizing that life and death are in God's hands, overcome the fear of life and death – the weakness of the flesh. This is what God is hoping for. Also, it is God's intention contained in the judgment to let people witness that the world is governed by God's sovereignty and to let the world know that man is a partaker of God's glory. It was to show accurately that God rules the world. That was the reason why people and animals were cut off and the land became a desert and a wasteland in Egypt which used to be filled with wealth and glory and power. God can destroy anything he does not like because God is omnipotent. However, God always allowed people to see God's judgment, left the remnants in the midst of judgment, and also caused people to remember the judgment and proclaim it.

Those who survived the judgment were chosen to carry the roles as the remnants. God

called some to write a song and sing it, and for others He left scars on the body as a witness. This made it possible for people to understand that judgment itself is not the end even in the midst of judgment. If we reach the end of the day today, we need to ponder on God's will for our lives. And we will need to prepare for a perfect tomorrow and prepare for the life of witnesses as the remnants

3 Into the Word

- 1. Why did God turn the land of Egypt into a desert and a wasteland? (29:9)
- 2. After judging Egypt, why did God make the people left behind become a feeble nation? (29:15–16)

4 Into our Life

God allows us to let go of things we depended on through judgment. If we have had events like this (a chance to let go of things we depended on), please share.

(5) Memory Verse - Ezekiel 29:16

"And it shall never again be the reliance of the house of Israel, recalling their iniquity, when they turn to them for aid. Then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GOD."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were you unable to accomplish out of things you wanted and planned to do?

MISSIONARY

OF THE MONTH

I was asked nine months ago how I would go about ministry in my new assignment in Belize, developing a food pantry would not have been on the list in my first year. But my list was not the same as God's list.

In 2015, God called me, my wife Barbra, and our three children (now we have four) to go from Zambia (Africa) to



Corozal, Belize – Barbra and Charles Mulemena help to sort the monthly support their MCCA churches provide to those who have been affected economically by COVID-19.

PHOTO: DAVID KAYLJI MULEMENA

Brazil (South America), an unfamiliar land where we had no contacts. We had no idea of the language, the culture, the people or anything at all. Yet we packed up and left all we knew because we believed God called us there.

From a biblical perspective, the reality is that missionaries don't necessarily choose to go, rather God chooses them and takes them there. My family and I did not have it easy at first. Once we learned Portuguese, we still had to learn the culture and customs of the Brazilian people.

As missionaries, no matter the expertise in our particular area of ministry, we need to understand that God can choose to use anyone and anything, but you will know when God chooses you. Following God, our role is to be humble in our service. We look to the example of Jesus Christ and how our Christian faith informs our worldview on culture. We need to grow in our Christian faith and our walk as missionaries.

Barbra and I chose to open ourselves to learning new cultures, peoples, traditions, languages and of course, many new things. In 2019, after we settled in and Brazil began to feel like home, we discovered that God had another list of things for us to do in Central America, about 3,000 miles northwest of where we had been in Brazil.

We've served in Belize for a little over a year now, where I pastor two congregations for the Methodist Church in the Caribbean and the Americas and work on spiritual formation in two Methodist schools. But within eight months of our transition to Belize, the COVID-19 pandemic entered Central America and changed everything we knew about how to do ministry. And we learned a little more about God's list for us in Belize.

Although the two congregations we serve, one in Corozal and one in Libertad, have few financial resources, we decided to start a pantry ministry that provides groceries to 15 families once a month. We've maintained this ministry since March 2020. In love and compassion, we could do no less, and as time progresses, we marvel at how God used the COVID-19 situation as a way to connect us to our community, reaching beyond the walls of the churches.

Through this monthly assistance, which is provided mostly to the Corozal community and not necessarily to our congregants, we have built strong relationships – not only with the beneficiaries, but also with the local municipality and law enforcement as the congregations foster the health and safety of our community.



Backpacks with school supplies for the at-risk students from two Methodist schools in Belize.

PHOTO: DAVID KAYLJI MUJI EMENA

We have learned again to be open

to the leadership of the Holy Spirit and allow God to use us, as God can use anyone and anything for God's glory.

The Rev. Charles Mulemena serves as a pastor for two congregations in Belize, Methodist Church of the Caribbean and the Americas, Corozal Methodist Church and Libertad Methodist Church, which are about seven miles apart. He also directs spiritual formation for the Methodist Schools in the Corozal and Libertad communities.

Contact Info: cmulemena@umcmission.org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김영봉목사 (와싱톤 사귐의교회, VA)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청원 기도'라고 한다.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구할 것 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얼마나 자주 믿고 구하라고 말 씀하셨는가!

문제는 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내용이다. 한국 교회가 기복적 종교로 타락했다고 비판받 는 이유는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 세적, 물질적 복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사실 기독교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이 세상의 안일과 쾌락과 풍요를 거부하고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면 자주 반대와 손해와 역경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은부르심(별 3:14)이다. 참된 기도자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통해 진리와 믿음,사랑,지혜를 구한다. 그러한 청원 기도를 통해우리의 영성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청원을 드려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은 믿는 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여행을 떠날 때,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청원할 수 있다.

이때 몇 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행동을 주문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라. 청원 기도 중에 자주 빠지게 되는 유혹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님께 제시하려는 것이다. 어떤 일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려는 유혹이다. 이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바람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아 가는 것이다. 이 태도로 기도를 지속하면 하나님의 인도에 모든 것을 맡길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둘째, 하나님의 일회적인 구출 행동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되기를 구하라. 위기에 봉착했다 해도 우리는 당장의 위기에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그 위기로 몰아넣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눈을 두어야 한다. 위기 앞에서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책임한 기도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기도다.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하나님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 오히려 "아버지, 저의 잘못된 삶의 열매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하오나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덧붙여 기도하기를 권면한다.

셋째, 반복할 청원과 반복하지 말아야 할 청원을 구분하라. 꼭 얻고 싶은 것이 있어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얻기까지 동일한 청원을 반복하는 일이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같은 요청을 반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인사 발령이 있다고 하자. 이번에 꼭 승진하고 싶다면 "아버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멋지게 능력을 발휘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청원할 수 있다. 마음을 다해 청원 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허락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면, 반복해서 청원해야 할 것이 있다. 직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실하게 일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원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그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마 6:33). 한 번 구하는 것으로 족한 것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인 반면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힘써야 한다.

청원 기도는 늘 감사와 함께 가야 한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요 11:41-42)라고 기도하셨다. 여기에 청원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해야 하는이유가 담겨있다.

첫째,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청원을 들으신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다. 응답이 어떠하건 나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할 일이다. 더욱이 그런 분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둘째, 하나님이 들으실 뿐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때로 우리는 뱀을 구하나 하나님은 생선을 주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의를 모를 때는 그 결과에 당황하고 놀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청원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청원 기도를 드렸다면 설사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얼굴과 마음에는 희열이 충만해야 마땅하다.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읽다 9

하나님나라와광야

이진희목사 (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이를 읽다〉 〈광아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 아브라함의광야와하나님나라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진다. 씨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다. 아브라함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주셨다.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 이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한다. 하나 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 셨다.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 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윸법을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난 다음 에 야 이삭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다.

↑ 요셉의 광야와 하나님 나라

▲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계획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내려보내시기로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시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시게 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13년 동안 광야를 지나야 했다. 마침내 그는 바로의 총리가 되게 된다. 그리고 형제들을 모두 초청해서 이집트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한 민족을 마침내 이루게 된다.

→ 모세의광야와하나님나라

이집트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거할 영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 그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보내게 하셨다. 40년간 광야에 들어갔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의 손에는 광야의 지도가 들려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미 40년간 살아서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나 가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와 하나님 나라

→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갔다. 하나님의 계획은 2년 정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다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생각이셨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과 불신에 가득 찬 히 브리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더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 연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했다. 그렇게할 때 그들가운데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이스라엘백성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인도(guide) 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고(provide),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protect). 그리고 그들의 목자로서 그들을 돌 보아주셨다(care). 그렇게함으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윗의 광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셨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고 싶어 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려고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은 세상의 왕을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고 15살의 어린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게 하셨다. 그는 13년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광야를 거쳐 나온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엘리야의 광야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를 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왕국(Kingdom of Israel)을 세웠다.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났다. 바알 신을 섬겼다.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지만 열매가 없었다. 한계를 느낀 엘리야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영적 침체의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그곳에서 천사의 돌보심을 받고 호렙산까지 40일 광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사역을 넘겨주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후대에 말라기는 메시야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며,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세례자요한의광야와하나님나라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 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 왜 제사장이 되기를 포기했던 것일까? 왜 광야로 나갔던 것일까? 타락한 성전 신앙에 회의를 느낀 것도 그가 제사장이 되기를 포기하는데 한몫했을 것이다. 당시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성전을 떠났다. 메시야를 대망했다. 그리고 메시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믿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 메시야를 기다리며 공동체 생활을 했다. 대표적인 그룹이 엣세네 파였으며 세례자 요한도 그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메시야의 선구자인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광야로 나온 사람이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하나님 나

라)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였다.

예수님의 광야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이신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 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면 먼저 사탄의 왕국을 쳐부숴야 한다. 사탄에게서 왕관을 빼앗아야 한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과의 일 전을 벌이셨다. 이 첫 번째 대결에서 사탄은 KO 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쉽게 항복할 리는 만무다. 그는 "잠시 예수를 떠났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찾아왔다.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당하게 했다. 예수님은 그모든 고난의 광야를 묵묵히 걸어가셨다. 멸시 천대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사탄은 음흉하게 웃었을 것이다. 내가 이기었 노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무덤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되고 결박을 당한 채 영원한 무저갱속에 던져지게 되었다. 사탄에게서 왕관을 벗기시고 이제 하나님이 왕으

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택함 받고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그 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고, 광야에 서 연단 시키시고 광야에서 준비시키신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 용하셨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받았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 게 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광야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하고 또 광야를 통과한 사 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사람의 건강이 신체와 마음의 조화라면 속회(소그룹)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소그룹)가 가진 본질적인 요소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면 건강한 속회(소그룹)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속회(소그룹)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중심의 삶의 나눔과 상호돌봄의 교제, 영혼구원의 사명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의 나눔

건강한 속회(소그룹)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나눔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속회 (소그룹)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등)을 이야기하는 친교모임이 아닙니다. 영적인 모임입니다.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의 나눔은 건강한 속회(소그룹)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속회(소그룹)에서의 활발한 나눔은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조명하여 점검하게 합니다. 속회원들은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일을 분별하며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15~17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상호 돌봄의 교제

상호돌봄의 교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동시에 속회(소그룹)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상호돌봄의 교제를 통하여 속회원들 간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결국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골로새서 3:12~17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

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 사하라

영혼구원의 사명

건강한 속회(소그룹)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속회(소그룹)는 교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영혼구원의 사역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속회(소그룹)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나아가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초청하여 영혼구원의 열매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속장은 영혼구원의 사명을 속회원들에게 수시로 강조해야 합니다. 속회(소그룹)가 영혼구원의 의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단순한 세상의 친목단체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 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조화와 균형의 유지

건강한 속회(소그룹)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요소들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조화와 균형을 상실해 버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한속회(소그룹)의세가지요소

예를 들면 말씀 중심의 '삶의 나눔'은 건강한 속회(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삶의 나눔'에만 집중한다면 속회(소그룹)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상실한 단순한 성경공부 모임으로 머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속회원들 간의 상호돌봄의 교제는 속회(소그룹)를 견고하게 지탱해주지만 교제에만 집중한다면 그 속회(소그룹)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친목단체로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 중심의 '삶의 나눔'이나 상호돌봄의 '교제' 없이 영혼구원의 사명만을 강조한다면 속회원들이 쉽게 탈진해 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속회(소그룹)는 '말씀 중심의 삶의 나눔, 상호돌봄의 교제, 영혼구원의 사명'이 속회(소그룹) 안에 함께 존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구원을 통한 속회(소그룹)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동찬 목사는 감신대학원과 웨슬리신대원(신학석사, 목회학박사)을 마치고, 감리교 속회연구원 원장, 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희망의 역사,

팬데믹 가운데 일어난 작은 감동 느헤미야 운동

글_느헤미야운동재정위원장양훈장로(뉴져지연합감리교회)

느헤미야 운동은 약 십여 년 전 아틀란타한인교회를 섬기던 김정호 목사님이 한인총회에 발의해서, "일천교회 운동"으로 시작했다. 미국 내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더욱 열심히 개척해서(church planting) 숫자상으로 1,000 교회로 만들자는 야심찬 운동이었다. 그러나 몇 년 안에 그 목표는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이민자 수는 매년 급속히 줄고있었고, 오히려 역 이민이라는 현상까지 겹쳐서 한인교회 개척이 무척 위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 감리교 한인 목사님들의 개척교회 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꾸준히 매년 교회 개척을 계속해왔다. 이에 힘입어 일천교회운동은 이름을 "느헤미야"로 바꾸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동안 개미군단의 헌금으로 느헤미야 운동에서 교회개척을 위해 지원한 재정은 약 \$ 200,000 에 달한다.

2019년부터 연합감리교단의 분열이(separation) 정식 안건으로 떠오르고, 교단의 장래가 불투명해 지자 느헤미야에 보내는 헌금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느헤미야 운동의 생존을 위해서, "평신도후원이사회"를 처음으로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왜 하필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이 운동을 시작하느냐고 걱정하는 분도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 밖에는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다. 새로운 느헤미야 운동 소개 자료도 만들었다. 여기에 첫 페이지의 일부를 소개한다.

교회개척은우리의사명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개척으로 시작되었고, 그 전통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 다수가 교회 개척 이야기이고, 세워진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씌워진 편지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한인교회를 세우기 위한 느헤미야 운동은 바로 교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사역입니다.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교회가 3만 교회, 모든 교회가 지난 200여 년 동안 개척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인교회는 약 250개 정도인데, 대부분 지난 50년 동안 "개척된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제자답게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며,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 사명은 중단되어서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교회개척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교회 운동으로 시작해서 느헤미야 운동으로 이어지는 동안 초대 운영위원장에 김정호 목사님, 2대 이훈경 목사님, 지금은 3대 이성현 목사님이 섬기고 있다. 그동안 개척교회 지원하는 일이 주 사역이었고, 앞으로도계속할 것이다. 그동안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난 적은한 번도 없었다. 마치 선지자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병같이.

2020 팬데믹속에서 시작한 느헤미야의 "후원이사" 모집은 30명이 목표 였다. 큰 숫자는 아니었지만, 전국적으로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하는 사역 으로는 처음 하는 일이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 3월 하순 현재 26 명의 후원이사가 참여하기로 약속해 주었고, 7명의 평신도 운영위원이 참 가하고 있다. 후원이사 26명은 모두 평신도들이다. 미국 각 지역에서 호응 한 평신도 들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후, 몸종에게 멀리 하늘 끝에 보이는 것이 있느냐고 묻는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인다"라고 하자,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장마비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이방 신 바알을 섬기는 배신자들을 벌주기 위하여가뭄을 내려 달라고 기도했었고, 2년 반동안 비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끝에, 다시 비를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 희망을 가진다. 느헤미야 운동의 후원이사 사역을 감히 엘리야의기도 이야기에 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고난과 시련, 재난속에서 더욱 왕성하게 성장했고, 어려움 속에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팬데믹이 세계적인 재앙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 재앙 속에서 느헤미야 운동을 다시 세우시는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감동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느헤미야의 또 한 가지 사역은 ⟨기쁨의 언덕으로⟩ 월간 말씀묵상 QT 지발행이다. 이중언어(Bilingual - Korean and English)로 미국 전역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만든 유일한 감리교 일일 묵상집이다. 미국내 한인연합감리교회 소속 목사님들이 쓴 글들이기 때문에, 내용 안에 감리교의 신학적 가치와 복음주의 입장이 그 배경에 단단하게 깔려있다. 짝퉁이 판치는 이 세상에, 정통 교단인 감리교의 웨슬리 신학과 복음주의 입장을 전하는 일 또한 중요한 사명이다. 이 책자를 매월 발행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원고를 쓰는 12명의 목회자, 4명의 번역팀, 7명의 편집위원들이자원하여 봉사하고 있다. 지금은 페이스북으로 ⟨기쁨의 언덕으로⟩가매일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2021년 부터 유튜브 ⟨기쁨의 언덕으로 TV⟩채널도시작되었다. 지난 10년, 끊임없이 노력해서 한인교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이 묵상집을 좀 더 많은 감리교회들이 함께 사용할수 있었으면 하는 꿈이 있다.

팬데믹 중에 시작한 느헤미야의 평신도 후원이사 운동은 "팬데믹 중에

시작한" 사역으로 기억될 것이다. 앞이 캄캄한 때 시작한 이 운동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목표 달성에는 약간 못 미쳤지만, 팬데믹으로 세상이 shutdown 됐을 때, "과연 가능할까?" 하고 걱정했던 것을 생각하면, "주 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저기서, 재단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매영숙 재단 YS MAE FOUNDATION), 또 교회의 이름으로, 또 online으로 느헤미야에 헌금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10여 년 전 김정호 목사님이 외치던 교회 개척의 꿈은 소박하지만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팬데믹 와중에 기도하면서 시작한 느헤미야 운동의 작은 소망과 목표는 꼭 달성될 줄로 믿는다. 그렇다. 이 사역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주인공이면서 나의 영웅들은 느헤미야 후원이사직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참여하신 후원이사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 운동의 감동을 만들어준 장본인들이다. 옛날 엘리야가 경험한 손바닥만 한 구름과 같은 희망의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준,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바친다.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레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 10 🗆 \$ 20 🗆 \$ 30 🗆 \$ 50 🗆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66 만나실수 있습니다. 99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u>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u>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남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속회설,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너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알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울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불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백형무, 612-859-5882)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u>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u>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리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멜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민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박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정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상톤사검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성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괌)

광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1/01			2021/02			2021/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잠언	1-2	01	이사야	1	01	이사야	4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20		9-10	20		8-9	20		주일
21		11	21		10-11	21		18
22		12	22		12-13	22		19
23	에스더	1	23		주일	23		20
24		2	24		14-15	24		21
25		주일	25		16-17	25		2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9		7-8	29		21	29		3
30		9-10	30		주일	30		4
			31		22			

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아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댜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레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김종완(느레미야 운동)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목회자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평신도 편집위원
 ☆ 편집문의
 ☆ 면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배연택 목사 (찰스톤 한인감리교회, SC)

❖ 주일 칼럼

이성웅 목사 (워싱턴 예수사랑 교회, VA) 이상혁 목사 (개포감리교회, 한국) 유양진 목사 (버몬트연합감리교회, TX) 정창호 장로 (샌디에고 한인연합 감리교회, CA) 이준구 목사 (화도 시온교회, 한국)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